



이달의 표지 주인공



박시영 양 (애항중 1학년)
박남수 과장(현대삼호중공업 건조2부)의 자녀

“바닷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미래에 멋진 화가를 꿈꾸고 있는 시영 양은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랑스런 둘째딸입니다.

이번 표지에는 아빠가 다니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만든 배를 타고 바닷속을 구경하고 싶다는 시영 양의 그림이 선정됐는데 화려한 색채가 눈에 띕니다.

더욱이 선박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한껏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바야흐로 로봇과 함께 할 미래를 상상한 걸까요? 선박을 운전하고 있는 로봇 바닷속을 탐험하는 수중로봇의 미소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영 양의 그림이 현실로 이뤄지는 그 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앞으로도 시영 양이 주변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커뮤니케이션부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6~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08

AUGUST | 현대중공업 가족 2017년 8월호 발행 2017년 7월 26일



Contents



08



14



30



38



42



48

기획 줄임으로 채우는 행복

04 줄임의 미학

06 줄여야 산다

10 생생 도전기

12 직장인 생활백서

사람 · 일

14 현장을 가다
현대중공업 의장5부 의장과 전장2팀

18 공사 수행기 사우디 JSTPP 공사

20 한 마음 한 뜻으로
현대삼호중공업 사기진작 탁구대회 /
현대일렉트릭 조직문화 캠프

22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현대미포조선 박성학 대리가
해인기업 윤봉재 팀장에게

24 새 얼굴, 새 활력
사진으로 만나는 신입사원 연수

26 우리 부서 미니 사보
현대중공업 선각기술부

28 이달의 도전 현대삼호중공업
기계시운전부 도정록 직장

30 그룹사 탐방 현대중공업MOS㈜

32 세계를 가다 프랑스

34 그때 그 시절
1977 · 1987 · 1997 · 2007년 8월

지역 · 삶

36 자랑스러운 사우
현대중공업 총무부 이성룡·김두현 사우

37 만나보았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의장1부 최상훈 사우
자녀 최운서 군

38 지역 소식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40 이달의 화제 인재개발원 특강

41 이달의 풍경
부산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42 여름밤 산책 수암 한우 야시장

44 클릭 맛과 멋
언양 맥주 공장 '트레비어'

46 알아봅시다 국내 아색 스포츠 명소

48 가볼만한 곳 전남 무안 낙농 체험장

50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일산동 김명수 씨

52 건강칼럼 안검하수

54 나를 만나는 시간

보람의 일터

56 뉴스 하이라이트

60 그룹사 소식

62 문화 포커스
'반 고흐' 레플리카 체험展 /
가족 뮤지컬 '정글북'

64 축구단 소식

66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힐링의 소리 '하모니카'

67 트렌드 따라 잡기 픽미세대

68 현대중공업 견학 후기

70 현중 가족 글마당

78 사우들의 추천 도서

80 생활법률

81 만화

82 쉬어가는 페이지

단순하게 산다는 것

빠르게 변화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인들에게는 '단순한 삶' 자체가 이상향이 되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적게 사고 불편할 정도로 줄이기만 하는 것이 단순할까? 진정한 심플 라이프를 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자.



단순한 삶의 시작, '나다움'에서부터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는 대개 소박한 옷차림, 검소한 소비처럼 외적인 특징으로만 정의된다.

하지만 심플 라이프를 꾸준히 실천하고 자신의 일부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함이 '나다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옷을 사면서도 매일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쓰던 물건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새 물건에 욕심을 내는 것은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유행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핀란드 작가 모니카 루코넨은 복유럽 사람들의 절제된 삶의 형태가 '스칸디나비안'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단순한 삶이 가능한 이유는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 물건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100년 전에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설파한 프랑스 목사 샤를 와그너는 '새로움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는데, 새 물건을 사면서 얻는 기쁨은 찰나에 불과하고 불필요한 소비로 인한 후회는 쌓여가는 물건만큼 오래도록 남는다고 한다.

일상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싶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오래된 물건이 품고 있는 이야기



핀란드에서는 할머니의 그릇을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릇을 딸이 물려받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릇을 사용한 할머니,

어머니의 이야기를 3대가 공유하고 거기에 딸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미니멀 라이프에는 쉽게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재평가

하는 삶의 태도가 담겨있다. 오래된 물건은 조금 낡고 불품없을지 모르지만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음을 기억하자.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새 것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옷을 입고 만난 친구와의 추억, 그 그릇으로 함께 식사한 가족들과의 행복한 기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래된 물건을 제대로 관리해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스스로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고치는 리폼(re-form)도 미니멀 라이프의 한 방법이다. 손 때 묻은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재탄생시키는 것은 삶의 또 다른 활력을 전해 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중요성



심플 라이프 혹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정보, 무분별한 욕구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계획해보자.

샤를 와그너가 '단순함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말한 것처럼 명확하고 주체적인 가치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핀란드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 숲 속 별장에서 명상이나 독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등 긴 휴가를 즐긴다. 그 휴식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간다. 또,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주체적으로 나의 감정과 생활을 이끌어 나갈 힘을 얻는다.

주변을 비워내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 절제하며 사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더욱 윤택한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서적 단순한 삶(샤를 와그너 저), 진정한 심플 라이프, 휘바 핀란드(모니카 루코넨 저)

현대중공업

“비효율 줄이니 경쟁력 쑥쑥~”

급격한 기술의 진보와 함께 기업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변화에 뒤처지는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과거에는 기업의 규모가 큰 것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요즘 같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는 오히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규모가 비대하고 조직이 복잡할수록 의사결정이 늦어져 재빠른 대처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여러 분야의 사업이 한 회사 안에

있을 경우 각 사업의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대중공업도 회사의 몸집을 줄여 본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사업분리를 실시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새롭게 출범한 각 독립법인들은 한결 가벼워진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전문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각 독립법인들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치에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로 연간 150억원 줄여

현대중공업은 연간 1천억원에 이르는 에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조감도



너지 비용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현대중공업과 울산시, KEPCO 에너지솔루션이 체결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공동추진 협약'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오는 10월까지 현대중공업 본사에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ESS는 저장장치에 전력을 담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현대중공업에는 산업용으로는 세계 최대인 50MWh(메가와트시) 용량의 ESS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현대일렉트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전기와 가스, 물 등 공장 내 모든 에너지 사용을 통합적으로 통제·관리·분석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전력 사용량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을 줄임으로써 연간 평균 에너지 비용의 약 15%인 150여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LED 조명교체, 전기히트펌프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등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신기술로 장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

생산 현장에서도 신기술, 장비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부터 해양 공사에 1대의 용접기로 이산화탄소, TIG, SM(피

복아크) 용접이 모두 가능한 '복합형 용접 시스템'을 시범 투입했다.

기존에는 용접 방법에 따라 양극과 음극이 다른 여러 대의 용접기가 필요했는데, 복합형 용접시스템은 디지털 제어 기술을 적용해 전극(電極)을 자동으로 변환함으로써 1대의 용접기로 다양한 용접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접 방식을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작업장에 필요한 용접기 수가 줄어 용접기의 설치, 철거 등에 필요한 공수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로보틱스는 7월부터 대구 신공장의 로봇 생산 공정 일부에 로봇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된 공정은 안전사고의 위험과 불량 발생률이 비교적 높았던 작업들인데, 로봇을 통한 조립 자동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없애고 품질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공동 추진 협약



▲ 복합형 용접시스템 개발

▼ 현대로보틱스 대구 신공장 로봇자동화시스템



조직 슬림화 · 공기 단축, 낭비 제거에 박차!

국내 조선업계 중에서 가장 수주실적이 양호하다고 알려진 현대미포조선도 일감부족이라는 파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오는 8월 중순부터 4기의 도크 중 1곳(4도크)이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로 인한 유휴인력도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초부터 조직을 더욱 슬림화하고 공기 단축과 낭비 제거 등 내부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수주가뭉에 따른 글로벌 조선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공법 개선을 통해 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일감 확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있다. 특히 5만톤급 PC선 기준으로 계약에서 인도까지 기간을 3개월 단축해 12개월로 줄이고, 도크 공기도 기존보다 10일 단축

한 34일로 줄이는 'V-1234' 경영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생활 속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도 전사적으로 씬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6월부터 생산현장의 남는 자재를 한 군데 모아 필요한 곳에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잉여재 자율 반납대'를 운영함으로써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생산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방치되거나 폐기되지 않도록, 사용 자재는 초록색, 잉여자재는 노란색, 폐기 자재는 빨간색 태그를 부착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각 부서별로 사무용품 공용함을 운용함으로써 사무기술직 사우들도 비용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각 개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해 자주 사용하거나 개인이 직접 구매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용품을 공용함에 넣어 함께 나눠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지만 방치되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사무용품을 동료들과 함께 나눠 사용함으로써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잉여자재 자율 반납



수주절벽으로 일감부족이 현실화 된 오늘날, 현대삼호중공업은 생존을 위해 '혁명적 개혁'을 선언하고, 경쟁력 회복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각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공정축소 및 비용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자동차운반선(PCTC) 설계 개선'이 그 일례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운반선 내부에는 이동식 경사로(Movable Ramp)와 환기 통풍구(Vent Trunk)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들은 블록의 접합 부위에 설치되기에 단열, 도장, 용접 등의 작업 시 작업자의 위험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경사로와 통풍구를 접합하고 나면 작업 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 추후 변형 및 수정 작업 등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설계실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설계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블록 접합 부위를 작업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시켜 작업자의 안전을 제고했다.

아울러 선체 도장과 보온 작업도 경사로와 통풍구 설치 전 선행할 수 있게 해, 재작업 및 검사 지연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정용석 과장(36세/현대삼호중공업 도장1부)은 "경사로 및 통풍구 내 시야 확보는 물론 추락사고 위험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며 "1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현대삼호중공업은 주판 절단 후 버려지는 사각형 잔재의 회수율을 높여 소부재 조립에 재활용함으로써 연간 3천

8백만원의 재료비를 절감하고 있다.

또, 각종 잔여 자재로 '착한 옥외 휴게실'을 조성해 신규 제작 대비 예산의 40%를 절약하는 등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 각 부서에서는 최근 '사무용품 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기류 종류별 1인 1펜 사용하기', '부서 필기구 공용 박스 만들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며 짧은 시간 내 사무용품 예산 30% 절감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전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발 벗고 나설기에 이 같은 값진 변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현대삼호중공업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에 매진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할 그 날을 기대하고 있다.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



▲ 사무용품 공용함

▼ 기존 블록 접합부위 모습



▼ 잉여자재로 만든 옥외 휴게실



▲ 사무용품 공용함

▼ 'V-1234' 경영 워크숍 실시



인생의 소중한 가치만큼, 확 줄이세요!

우리에게는 건강, 시간, 아름다운 자연 등 잘 들여다 보고, 아끼지 않으면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것들이 있다. 사보편집실은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줄이기'에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우들을 소개한다.



주영희 사우
(29세, 현대중공업 조선인재운영부)

‘단독방 다이어트’로 체중감량 성공

사실 제게는 저녁에 퇴근하고 맛집을 들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휴가를 위해 지난달부터 부랴 부랴 다이어트에 돌입했어요. 지인 6명과 카톡 단독방을 만들어, 매일 식사량과 운동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날 먹은 음식들을 모두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 변동사항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절로 경쟁심리가 불타올라 일주일 만에 2킬로그램을 감량했습니다. 또 밀가루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사내 커피숍 아마테우스에서 점심으로 샐러드를, 집에서는 연어, 닭가슴살, 과일 샐러드, 견과류 등 저지방 고단백 메뉴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덕분에 외식하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염분 섭취도 줄었죠. 혼자 하는 다이어트가 어려우시다면, 단독방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세요. 스스로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자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윤안나 사우
(29세, 현대일렉트릭 산전기기영업부)

환경을 보호하는 ‘텀블러’ 사용

제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컵 대신 예쁜 무늬의 텀블러가 놓여 있습니다.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들을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늘 개인 컵을 소지합니다. 저를 따라 주변에서도 하나 둘씩 텀블러를 사용하는 인원이 늘어날 때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물론 텀블러는 사용하고 나면 매번 씻어야 하는 등, 종이컵보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작은 노력이 지구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것이 나와 내 주변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이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소소한 불편에 불과합니다. 저는 앞으로 비닐 봉지와 같은 다른 일회용품의 사용도 줄여볼 계획입니다. 사우 여러분들도 환경을 아끼는 작은 실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게임, 이젠 ‘안녕’!

저는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한 번 시작하면 끝낼 때까지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새로 나오면 거기에 폭 빠져 퇴근 후나 주말에도 계속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를 두고 따로 노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지난 제 모습을 반성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완전히 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은 새 게임이 나와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는 경제뉴스나 이북(e-book)을 보는 등 시간을 훨씬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학 과장
(35세, 현대미포조선 건조2부)

바보박스(?)로부터 탈출, ‘마음의 양식’ 쌓는다

퇴근 후 가만히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 하루 중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오직 TV에만 몰두했었습니다. 어느날 그런 제 자신을 깨닫고, ‘이 시간을 줄여 다른 효율적인 일을 해보자’ 다짐했습니다. 그 때부터 ‘일주일 에 책 한 권 무조건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시끄러운 방안이 고요해지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도 잘 읽히지 않아, 책을 끝까지 읽는 게 마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퇴근 후 책 읽는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1년에 한 권 읽던 제가 이제는 일주일에 1권을 읽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우들도 저처럼 ‘마음의 양식’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박선희 사우
(25세, 현대삼호중공업 원가회계부)

믹스 커피 대신, ‘아내표 과일 주스’ 마신다

회사에는 믹스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는 졸음을 깨기 위해, 점심 먹고 나서는 습관적으로 또 손님이 와서 1~2잔을 더 마시는 등 많을 때는 하루에 5~6잔까지 믹스 커피를 먹었습니다. 믹스 커피엔 프림과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카페인 과다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먹던 커피를 줄이기가 어려웠죠. 그러던 중 지난 4월부터 아내가 아침을 겸해서 회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생과일 주스를 갈아준 덕에 믹스 커피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나나, 키위, 케일 등 위와 장에 좋은 재료들을 섞어 만든 과일 주스는 정말 든든한 한 끼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야채가 들어있어서 별도의 비타민제, 건강 보조제를 챙길 필요도 없어졌죠. 이제 회사에서 믹스 커피는 오후에 1~2잔 가볍게 마십니다. 매일 아침 주스를 챙겨주는 아내, 고맙고 앞으로 도 행복하게 살자!



김정훈 사우
(30세, 현대글로벌서비스 마린서비스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출근할 때, 사무실에 들어올 때, 퇴근할 때 우리가 빠짐없이 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인데요. 저도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이고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층 이상 오르기가 숨이 차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지금은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습관이 돼 생활 속 작은 즐거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전기를 줄인 대신, 튼튼한 다리까지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왕성준 대리
(32세, 현대건설기계 재정부)

새는 '돈' 줄이는, 현명한 소비 습관

가계부엔 커피, 점심, 편의점 등 일상적이거나 소소한 필요 지출들 뿐, 큰 액수의 지출은 없다.
그런데 방을 정리하다 보면 당장 필요치 않은 잡동사니들이 구석마다 쌓여 있어 절로 한탄하게 된다.
줄줄 새어 나가는 돈을 막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소비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는 아메리카노보다 맛있는 더치커피를, 다이어트를 위해 조금 비싸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곤 한다. 이처럼 우리의 '필요'는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 그러나 작은 비용일지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이는 곧 낭비로 귀착된다. 또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먼저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으로 과소비 줄여야

충동성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야기할 결과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일시적 근시안'을 초래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일단 눈앞의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 그럴수록 현재에 대한 보상으로 불필요한 '소소한 지출'이 증가하

게 된다. 이럴 때 스스로 이루고 싶은 것이나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미래를 위한 저축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위한 TIP

- 필요한 것의 리스트를 만들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
 - 꼭 필요한 항목을 소요 비용과 함께 작성한 후 시간 중요도 순으로 정리
 -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계산
- 소비 예산을 세우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
 - 생활비, 자기계발 투자비 등 매월 지출 항목을 크게 3~5개 정도로 구분
 - 세세한 지출 항목에 얽매이지 말고, 큰 항목별 적당한 소비 예산을 결정
- 계획과 실제 소비생활을 비교한다.**
 - 해당 항목별 예산 대비 지출 내역 확인
 - 예산을 초과한 지출 항목, 예산보다 적게 지출한 항목 등 비교

신용카드를 멀리, 체크카드는 가까이

소비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위험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신용카드는 미래 수입을 담보로 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에는 할부기능이 있어 과소비와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높아 월금을 받기도 전에 빚을 지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한다. 반면,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빚에 대한 우려도 없다.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는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고, 연회비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포인트, 할인 혜택이 많아지면서 일상에서 꼼꼼하게 혜택을 챙기려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 지식을 얻어라

요즘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세 상품이다. 절세 상품은 세금을 아예 물리지 않거나 깎아주는 상품인데 대부분 가입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절세 상품은 가입 요건과 본인의 현금 흐름, 자금 지출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 상품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최신 금융 정보나 다양한 금융 상품을 찾아보고, 일 년에 한 번은 재무 목표에 맞게 제대로 소비 습관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소비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돈 아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추천

아끼면 황금 뽕
쓴 돈이 아닌 '아낀 돈'을 기록하여 절약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신개념 어플. 내가 얼마나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피드백도 주고 받을 수 있다.

똑똑 가계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 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줘 빠른 가계부 정리가 가능한 어플. 기간별, 카테고리별 통계 파일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시그널
소비자가 뽑은 가장 예쁜 디자인의 가계부 어플. 업종 분류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목표 예산을 코칭 해준다.

네이버 가계부
지출 비용을 자동 분류하고 항목별 소비 패턴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하는 어플. 네이버와 연동돼 있어 모바일과 PC에서 언제든 가계부를 쓸 수 있다.



“LNG-FSRU 건조, 우리가 책임진다”

‘바다 위의 LNG기지’라 불리는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는 액화천연가스를 받아 저장하고 필요시 재기화(再氣化)해 육상 수요처에 공급하는 설비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총 9척의 LNG-FSRU를 수주해 이중 5척을 인도했고, 시장 점유율은 44%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LNG-FSRU를 차세대 주력 선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장 일선에서는 다양한 공법개선을 통해 약 29개월이 걸리던 공정기간을 25개월로 단축했는데, 현대중공업 의장5부 의장1과 전장2팀은 LNG-FSRU의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생산팀 가운데 하나다.





‘화재 센서 설치 개선’으로 공수 절감

전장2팀은 선내에 변압기와 배전반, 차단기 등 각종 전력기기들을 설치하고, 곳곳으로 전력망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2015년부터 LNG-FSRU 건조 선박들을 도맡고 있는데, 어떤 선종보다 전장 작업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인다고 한다. 초대형 원유운반선에는 12만미터의 전력케이블이 사용되는 반면, LNG-FSRU에서는 그보다 4배가량 많은 43만미터의 케이블이 필요하다. 이 선박은 LNG화물창과 재기화설비, 비상차단설비(ESD), 감지센서 등 일반 상선보다 더 많은 의장품들을 탑재해야 해, 이들을 연결하는 전력망도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LNG-FSRU는 위험물질인 LNG 가스를 다루는 만큼 해양플랜트 수준의 선급 기준에 따라 건조된다. 특히 가스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컴프레서와 구동 모터 주변은 방폭 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정전기 발생을 차단하는 접지(接地) 작업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진다. 또한 LNG 증발가스를 태워 생활온수를 만드는 ‘리가스 보일러’(Regas Boiler) 등 새롭게 탑재되는 설비들도 늘어나고 있어, 고품질 제작 못지 않게 공수관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다.

이를 위해 설계, 생산 등 각 부문별로 개선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전장2팀도 지난 6월 ‘화재감지센서(Smog Detector)’의 설치방법을 개선하며 책당 300만원의 공수를 절감했다. 예전에는 관련 센서 부품들을 비좁은 선박 안에서 모두 조립하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는데, 최근에는 외부 작업장에서 부분 조립한 후 선내로 들어옴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무재해 4천100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비결

LNG-FSRU는 일반 상선보다 밀폐구역이 많아,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장2팀은 의장5부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유명한데, 이는 지난 5월 말 외업부문에서 이례적으로 무재해 4천100일을 돌파한 비결이기도 하다. 전장2팀은 퇴근하기 전 다함께 모여 다음날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팀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위험요인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팀장인 정현탁 기원(49세)은 이 사항들을 토대로 현장 안전 시설들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한다. 만일 팀원들이 밀폐구역 가운데 하나인 선박 하단부(Duct Keel)

에서 작업한다면, 정현탁 기원은 먼저 현장을 방문해 조명등과 환기시설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 이후 팀원들에게 달줄이나 손전등 등 작업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안전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처럼 전장2팀은 팀원 스스로가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막고 있었다. 정중운 기원(56세)은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듯이 현장 작업자들도 미리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장2팀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동료의 위험행동을 발견하면 곧바로 시정 조치한다. 이처럼 전장2팀은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무재해 달성은 가능한 일이라 굳게 믿고 있다.

자발적인 팀 문화로 일터를 즐겁게

총 22명의 팀원들로 구성된 전장2팀은 자발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일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대다수의 젊은 사우들은 야간자율 직무교육에 참가해 설계도면 해석, 전기이론 교육 등을 수강하며 자신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있다. 김상민 사우(35세)와 조우진 사우(37세)는 누구보다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 팀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실력자로 성장했다. 이들은 전기공사 기능사, 전기기기 기능사 등 다양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사내 기능경진대회 전기공사 분야에서 잇달아 입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상훈 사우(35세)도 전기기능장을 취득하기 위해 퇴근 이후 부서 교육장에 남아 실기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 또 전장2팀은 여가시간에 체육활동을 통해 끈끈한 팀워크를 다진다. 팀 내에 축구, 골프 동호회가 결성돼 있어 격주 단위로 활동하고, 팀원 전제가 매월 한 차례씩 단합행사를 갖는 등 함께 스포츠를 즐긴다고 한다. 한창렬 사우(38세)는 “스포츠는 우리 팀에서 서로에게 서운했던 마음마저 잊게 하고, 서로 화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대화’와 ‘소통’은 안전하고 완벽한 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전장2팀은 각종 문제들을 개개인의 일로 여기지 않고, 팀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러한 소통문화가 전장2팀을 어느 조직보다 품질, 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생산팀으로 발돋움시킨 것은 아닐까. 앞으로도 고품질의 작업으로 LNG-FSRU 건조에 탁월한 성과를 발휘할 전장2팀의 모습이 기대된다.



아래는 현대중공업 황문탁 부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행한 제다사우스 발전소 공사 수행의 경험을 적은 글입니다.

현대가 만든 발전소, 사우디의 빛을 밝히다!

JSTPP(Jeddah South Thermal Power Plant) 프로젝트는 현대중공업이 2012년 10월 27일 발주처 SEC(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로부터 수주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지역 홍해에 위치한 제다(Jeddah)시 남쪽 70km 지점에 발전설비 4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발전소 총면적은 199만6천평(660만㎡)이며, 현대중공업이 건설하는 Stage I 면적은 103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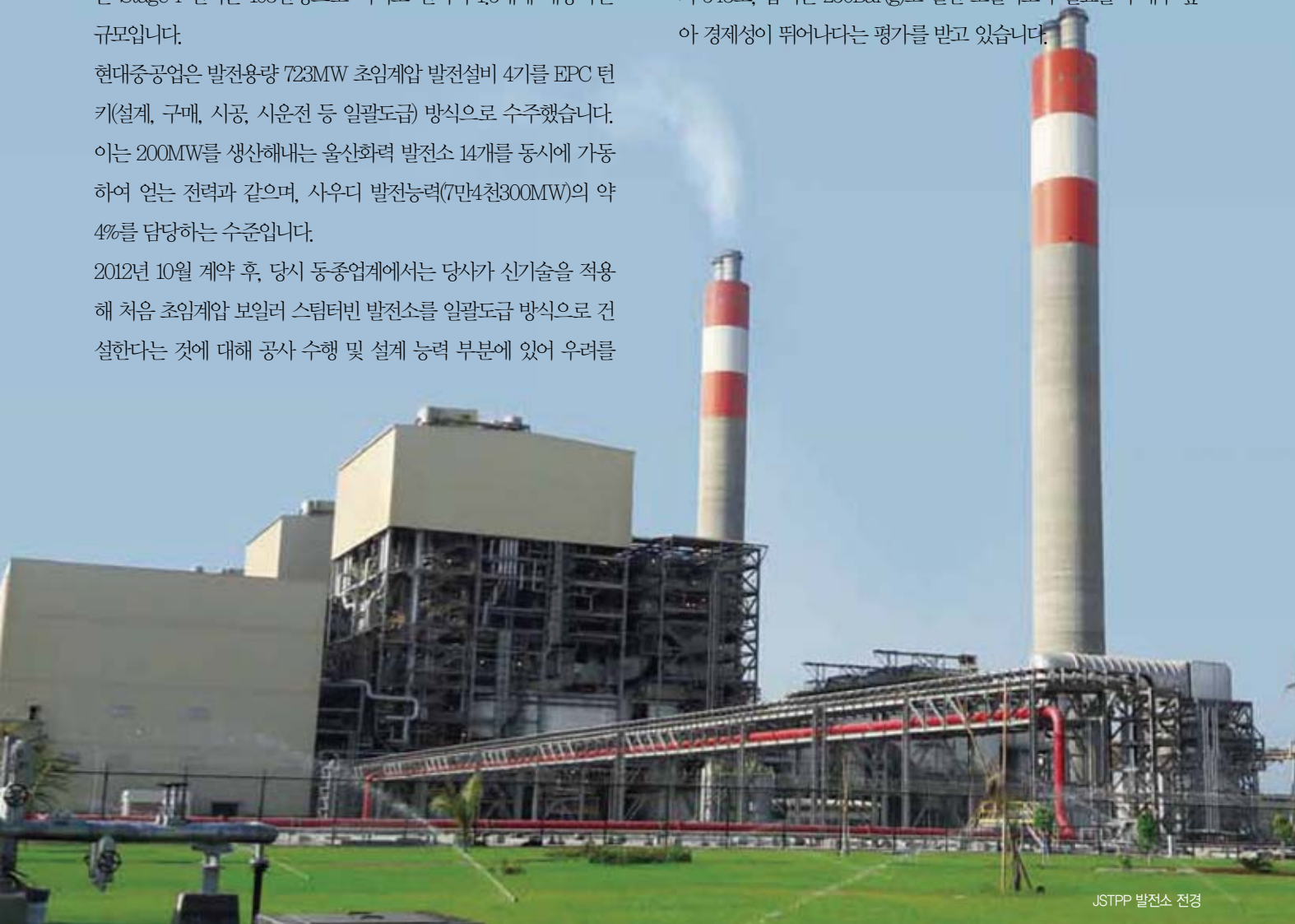
현대중공업은 발전용량 723MW 초임계압 발전설비 4기를 EPC 턴키(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 일괄도급) 방식으로 수주했습니다. 이는 200MW를 생산해내는 울산화력 발전소 14개를 동시에 가동하여 얻는 전력과 같으며, 사우디 발전능력(7만4천300MW)의 약 4%를 담당하는 수준입니다.

2012년 10월 계약 후, 당시 동종업계에서는 당사가 신기술을 적용해 처음 초임계압 보일러 스팀터빈 발전소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 공사 수행 및 설계 능력 부분에 있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내 479개(2016년 기준)의 발전소 가운데 동종 발전소 대비 최고의 효율성 자랑하는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이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특히 사우디 최초로 초임계압 보일러를 장착하는 등 스팀의 온도가 543도, 압력은 250Bar(g)로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매우 높아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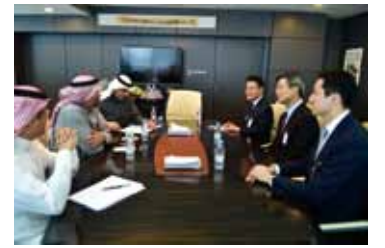
JSTPP 발전소 전경



▲ 선박 접안 시설 및 제티(Jetty)



▲ 권오갑 부회장 등 경영진 현장 점검



▲ 최길선 회장, 발주처(SEC)와 프로젝트 논의

대규모 자재·장비 투입된 4년간의 진기록

본격적인 발전소 착공이 시작되고 유목민만이 살던 사막에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철근은 7만949톤, 콘크리트는 68만8천517㎢가 사용되고, 2015년 11월에는 무려 하루 최대 1만6천727명의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땅을 파 기초를 만들고, 철골을 세워 기계를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해 전기 작업을 하는 등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작업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정신 없이 공사가 진행됐지만, 그동안 다수의 발전소를 시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의 비자 발급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적기 인원 동원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인원 동원에 대한 지연은 곧 공정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

발주처와 약속한 2016년 5월부터 여름 성수기 발전소 가동을 위해 우리는 공정 만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발주처 및 감리사, 협력사와 한 마

음 한 뜻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감리 책임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문제를 협의하고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협력사와도 많은 대화를 하여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보완하고, 비용절감과 공정을 개선한 직원 및 조직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현장 분위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열정 가득한 직원을 재배치해 조직을 강화하고, 본사와 현장의 구분 없이 24시간 근무 체제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SNS를 활용해 당사 직원, 발주처, 감리사간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 보일러 빌딩 및 집진 설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 오랜 기간 발주처와 공사를 같이한 경험 많은 임직원을 임용하는 한편, 발전소 운전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동종업체 최고 기술진을 초빙하여 본 공사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성공적 준공을 앞두고...

약 10개월 동안 공정 만회를 위한 우리의 밤낮 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6년 5월 첫 호기의 발전을 시작으로 매월 1호기씩 발전을 가동하는 등 8월까지 4개 호기에 대한 발전을 완수해냈습니다. 발주처는 짧은 시간에 4개 호기를 설치해 전력 생산을 해낸 현대중공업의 끈기와 저력에 놀라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시킴으로써 발주처의 두터운 신뢰를 갖게 된 현대중공업은 2016년 메카 주정부로부터 최우수 시공사(Best Contractor)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또 발주처 최고경영진에게 당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갖는 등 현대중공업의 위상을 제고하게 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 밤낮 없이 매진했던 지난 4년 6개월의 시간이 눈 앞을 스쳐갑니다. 공사 수행 중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현장 임직원들은 창업자의 현대정신을 바탕으로 정신 무장을 하며 힘을 냈습니다.

1억1천만 시간 무재해를 달성하며 철저한 안전 관리 속에서 마무리하게 된 JSTPP 공사! 현대중공업그룹 가족들에게 발전소의 성공적인 준공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공적이었던 점을 더욱 발전시켜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자산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글 황문탁 부장 (현대중공업 사우디 JEDDAH SOUTH현장)

점심 먹고, ‘미니 탁구’ 한판?

더운 여름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우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자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하절기 사기진작 탁구대회’를 열었다. 화끈한 승부의 현장으로 떠나보자.



“그냥 때려!” “그렇지! 좋아!”

지난 7월 3일 오후 12시 30분, 사람들의 응원 속에 경쾌한 탁구공 소리가 휴게실 내를 가득 채웠다. 점심 먹고 미니 탁구 한판이 처음으로 시작된 날, 공무부 정비팀이 첫 번째 순서로 경기를 치르게 됐다.

소식적에 ‘탁구 좀 해봤다’는 사우들이 경기에 출전했는데, 마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국가대표를 보는 듯한 아우라가 풍겨왔다. 탁구채를 잡는 손 모양부터 스윙하는 자세까지 안정된 모습이 인상적이다.

평소 탁구에 자신 있다는 조규승 조장(46세/현대삼호중공업 공무부)은 “오늘을 위해 부지런히 연습 했지만 오늘은 좀 떨린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번 ‘미니탁구 대회’는 기존의 탁구 대회와는 조금 달랐다. 흔히 경기장에서 봐왔던 정식 탁구대가 아닌 실제 탁구대의 1/4 크기에 불과한 미니 탁구대에서 경기를 펼쳤던 것이다.

작은 탁구대를 발견한 팀원들은 “에게~ 겨우 이겨?”하며 조금은 얄잡아 보는 듯 했으나, 실제 경기를 하면서는 “와!”를 연발하며 의외로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 제발, 1점만 데!” 양 팀의 뜨거운 승부욕과 함께 점수판이 요동쳤다. 가까스로 점수 차를 벌려 놓으면 어느 샌가 쫓아와 간발의 차로 역전하는 등 앞지락뒤지락을 반복했다. 결국 1점 차이로 승부가 결정 났고, 정비 1팀은 승자와 패자 나나 할 것 없이 만세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경기를 지켜보던 황윤일 팀장(51세/현대삼호중공업 공무부)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팀원 모두가 오늘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 어떤 위기든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에 펼쳐진 진검 승부! 사우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탁구 한판의 짜릿함으로 풀어버렸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현대삼호중공업 사우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활력소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본다.



1박2일의 일정으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프는 현대일렉트릭의 전(全) 직원들이 행사의 주인공이자 참가대상으로, 총 29차수에 걸쳐 오는 11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대일렉트릭은 직급과 나이, 담당 업무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우들을 차수별로 고르게 편성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스피드 퀴즈와 노 젓기(Rowing) 대결로 굳었던 몸이 풀리고 나니 캠프의 열기는 더욱 무르익기 시작한다.

고압차단기생산부에 근무하는 장석현 사우는 “평소 만나기 힘든 다른 부서 동료들과 함께 하는 교육이 매우 신선하고 새로웠다”며, “함께 웃고 박수 치며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니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마치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동료처럼 살갑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화합과 공감을 주제로 소속감을 높이는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에는 회사의 역사를 살펴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등 현대일렉트릭인으로서 자부심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특강을 통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략, 주력 제품의 프리미엄화, 글로벌 R&D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알아보고, 세계 최고의 전기전자 회사를 향한 사우 개개인의 변화와 실천을 다짐하기도 했다.

특강에 나선 주영걸 사장은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가 고객들에게도 사랑 받을 수 있다”며,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이번 캠프가 회사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끈끈한 동료애를 더한 현대일렉트릭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소통과 화합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1박 2일!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현대일렉트릭 조직문화 캠프’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매주 경주의 여름밤을 추억으로 수놓고 있다.



“햇병아리 시절 고마움, 이제야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명인’, ‘장인’ 등으로 부르며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순간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초보’ 시절부터 흘려온 땀과 노력이 결실을 거둬 이룩한 성과인 셈이다. 박성학 대리(32세/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는 험난(?)했던 신입사원 시절,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준 해인기업 윤봉재 팀장(52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사보 편집실로 사연을 전해왔다.

‘햇병아리’ 다독여주시던 삼촌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늦었네요.” 박성학 대리는 윤 팀장에 대해 오랜 시간 간직한 고마움을 이야기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선실생산부로 입사해, 처음 전장파트 업무를 맡게 된 박 대리는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으로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정을 쟁겼다. 하지만 당시는 조선업 호황기로 현대미포조선이 한 해에 80척의 배를 인도할 때였다. 선종별로도 PC선, 아스팔트운반선, 벌크선, 컨테

“윤봉재 팀장은
오늘도 환한 얼굴로
동료들을 배려하며
즐겁고 활기찬
작업장을 만들고 있다.”

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컨-로선, LPG운반선 등 다양한 선박이 건조됐다. 바쁜 공정을 맞추기 위해 작업자들은 설새 없이 움직였고, 누군의 실수로 작업이 지연될 때면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근속 20년 이상의 현장 베테랑 ‘형님’들에게 아들뻘 되는 신입 ‘햇병아리’의 업무지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 둘 마찰이 생겨났다. 속 앓이 하던 그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가 바로 윤봉재 팀장이었다. 윤 팀장은 인생 선배로서 사회 초년생의 마음가짐과 사랑받는 후배의 유형 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박 대리를 다독여줬다. 윤 팀장의 격려에 자신감을 얻은 박성학 대리는 양손 가득 음료수를 사 들고 ‘형님’들을 찾아갔고,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본 작업자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금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됐다. “그때 팀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게는 ‘삼촌같은 분입니다.’ 사보편집실에서는 박성학 대리의 마음을 담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 그것은 바로 전장 작업자에게 꼭 필요한 ‘공구가방’! 박 대리로부터 선물을 건네받은 윤 팀장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무더운 날씨에 케이블 설치를 하다 보면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마련. 하지만 윤봉재 팀장은 늘 입가의 미소를 잃지 않는다. 매일 아침 호선에 올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그는 현장에서 ‘웃음 전도사’로 통한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사람들과 다툼도 생기고 화가 날 때도 있지요. 그럴수록 상대방에게 밝은 미소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 ‘웃음 바이러스’가 전파돼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환한 웃음의 윤봉재 팀장처럼 동료들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회사 곳곳에 널리 퍼져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직장이 되길 소망해본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현장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의지와 열정을 가진 현종인 되길”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권오갑 부회장은 ‘신입사원의 바람직한 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는데, 특히 ‘신입사원들이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현대중공업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을 기리며 ‘현대정신’ 함양”

신입사원들은 아산기념전시실을 방문해 정주영 창업자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고 그의 강인한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백원짜리 지폐로 차관을 얻어 마침내 선박 건조를 가능케 했던 일화, 대한민국 국토의 대동맥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일화 등 창업자의 역경 극복 스토리는 신입사원들의 가슴 깊숙이 열정의 핵을 품게 하는데 충분했다.

사진으로 만나는 ‘열정’과 ‘패기’의 현장

아직 옛돼 보이는 얼굴 위로 싱그러운 미소가 가득하다. 두 눈은 강인함과 패기로 반짝거린다.
주인공은 지난 6월 28일 입사한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 61명.
이들은 울산과 경주 등에서 그룹 공통 입문교육을 받으며 현종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신입사원들의 활기 가득한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울산현대 파이팅! 현대중공업그룹 파이팅!”

신입사원들은 문수구장에서 울산현대 축구단의 경기를 관람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채웠다. 이날 수원삼성과 경기를 치른 울산현대 박용우의 극적인 역전골로 2대 1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는데, 신입사원들은 힘찬 응원과 함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마음껏 즐겼다.



»»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봉사활동”

신입사원들은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해 나눔과 봉사의 참된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꽃동네’는 오웅진 신부가 1976년 설립한 복지시설로, 신입사원들은 이틀에 걸쳐 ‘부활의 집’, ‘요한의 집’, ‘인곡자애병원’ 등 6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자들을 도우며 소외된 이웃들의 ‘손과 발’이 돼 주었다.



» “인기 드라마 세트장에서 사진 한 컷 ‘찰칵’”

신입사원들은 경주 보문단지에서 신라말레니엄파크를 방문해 추억을 쌓았다. 이곳은 ‘선덕여왕’ 등 다양한 사극이 촬영됐던 드라마 세트장으로, 신입사원들은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며 동료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 “통나무 집에서의 1박 체험”

봉사활동 후 경기도 안성 너리굴 마을로 이동한 신입사원들은 팀을 이뤄 통나무로 집을 지으며 돈독한 팀워크를 길렀다. 2시간여만에 완성된 ‘통나무 집’을 보고 신입사원들은 연신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 “끈끈한 팀워크로 문제 해결”

신입사원들은 동료들과 창의적인 그룹 활동에 참여하며 팀워크를 다졌다. 8~9명이 한 팀을 이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기르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다.



» “유감 없이 발휘한 끼와 열정”

마지막 공통교육의 날! 신입사원들은 12박 13일 동안 함께 했던 그룹 동기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호텔현대경주에서 2주간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온 ‘팀 퍼포먼스’ 선보였다. 이들은 위기를 딛고 당당한 현종인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담은 연극 ‘군세이라 현대아’, 울랄라세션의 ‘아름다운 밤’에 맞춘 댄스 등을 선보이며 넘치는 끼와 열정을 발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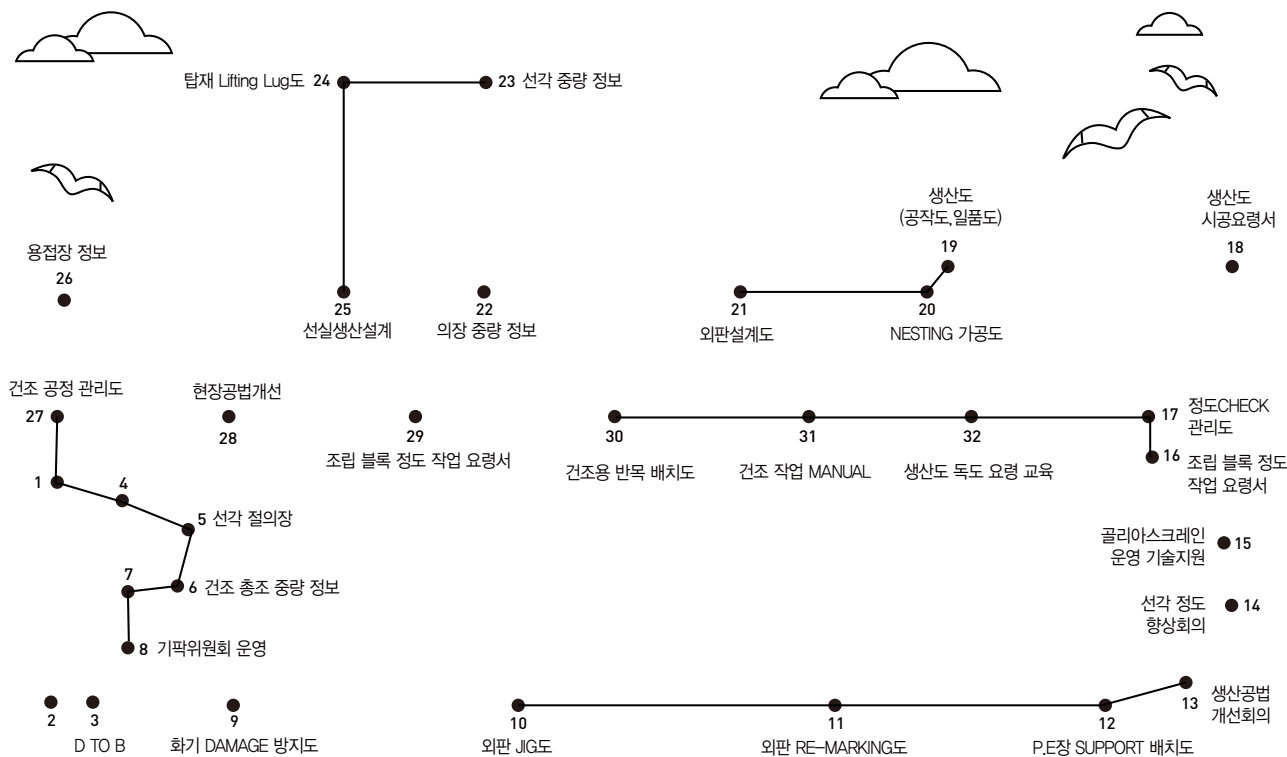


고품질 도면·최적의 공법 개선으로 현장과의 가교 역할, ‘톡톡’

현대중공업 선각기술부는 지난 2015년 8월 선각부문의 생산설계, 계량, 탑재LUG 업무를 통합해 새롭게 출발한 부서다. 선각기술부는 가공, 조립, 건조의 생산 공정에 맞춰 필요한 생산도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블록 제작과 관련한 시공 기준, 치구 표준집을 발간하는 등 조선 설계와 생산 현장을 연결하고 있다.

편(FUN)편한 업무를 위해 선각 기술 들어갑니다!

아래 소개된 각각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번호 순서대로 선을 그으며 점과 점을 이어주세요.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선각기술부'입니다..



이정훈 부장

부서장 인사말

굳은 신념과 올곧은 마음, 따뜻한 동료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각기술부 부서원 모두는 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고품질 도면을 현장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원들처럼 정이 넘치는 분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부서장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생동감 넘치는 선각기술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선각기술부 파이팅!

부서 업무 소개

생산설계, 2, 3과

전 선종 선체 생산설계도 작성

이름 없는 강재 한 조각에 가공, 성형, 용접 정보와 조립 작업장의 특성 등이 함축된 이름이 부여되면 마침내 위용을 뽐내내는 한 척의 선박이 되기에 최적의 제작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고품질 생산 설계도면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선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외판의 설계를 담당하며 블록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도면 오작 발생을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도면 품평회를 갖고, 도면 점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탑재설계과

탑재LUG도, 정도 관리도 작성



크레인을 이용한 블록 탑재LUG 도면과 블록 정도 관리를 위한 관리도 작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65일 쉼 없이 블록 탑재를 수행하는 골리아스 크레인(Goliath Crane)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아스 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의 상징인 만큼 관련 업무를 하는 과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법기술과

조립 공법 개선, 계량 기술 지원



현장 작업성을 점검하고 선종별 최적의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 도출된 개선 사항을 블록 제작 설계에 적용하는 등 현장 생산성 및 선체 건조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의 중량, 무게중심, 용접장을 정확하게 반영한 계량 정보를 연관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목, 이 사원

명에 사원

‘휴게실 피돌이’

입사 3년 차인 휴게실 터줏대감 ‘피돌이’는 장마철에도 특유의 바삭한 식감을 잃지 않는 끈은 성품으로, ‘동료들의 스트레스 격파’가 주요 업무이며 ‘사이다 같은 휴게실’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입사 이래로 퇴근을 한 적이 없는 선각기술부의 악바리 사원입니다.



우리 부서 자랑거리



사내방송에도 소개된 적 있는

는 새해 첫 출근 행사, 비 오는 날

부서원들의 위해 구비해둔 ‘무지개 우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제작한 머그컵, 부서원

생일날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한 풍선과 간소한 선물

등...

현대중공업 선각기술부는 유쾌하고

발랄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밝고 소통하는 부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히 업무 향상에도 선순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거침없이 계속될

선각기술부의 특별한 이벤트

들을 기대해주세요.



‘운동’은 내 삶의 활력소!

여름을 맞이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매일 운동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여기에 현대삼호중공업 도정록 직장(53세/기계·시운전부)은
‘하루에 운동 2시간, 한 시간 내 거리는 무조건 걷기’라는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식적 ‘도정록-운동=0’이라 말하는
그의 7일간의 운동 도전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자.



건강을 위해 힘찬 도전에 나선
도정록 사주의 모습을
블로그 'hi,h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1일차

“마음을 다시 잡고 시작”

더운 여름이 찾아와
서인지 온 몸의 기력
이 빠져 몸이 무겁
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
고 운동을 열정적으
로 하기로 다짐했습
니다. 잠시 뒤로 했
던 체육관을 찾아
기본 운동과 복근
운동, 케이블 기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2시간 운동이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한
동안 운동을 쉬어서 그런지 부쩍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
나 이왕 하는 도전이니 꼭 성공하겠다는 깊은 다짐과 함
께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2일차

“날씨가 흐려도 도전은 계속된다”

계속해서 날씨가
흐리고 장마
가 지속됐습니
다. 습도는 나날
이 높아 후텁지
근하여 퇴근 후
얼른 집에서 쉬
고 싶다는 생각
이 절실했죠.
하지만 ‘나’ 자신
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버릴
수 없어 목적지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온 몸이 후끈후끈, 머리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
혔지만 걷다 보니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
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사우들은 저와 같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길 권장합니다.



3일차

“무리한 운동은 안 한 것만 못하다”

날씨가 흐리다
못해 비가 쏟아
졌고, 또 다시
마음이 뒤숭숭
해졌습니다. 그
러나 퇴근시간이
되자 놀랍게도
비가 멈춘 덕에
집에서 체육관
까지 걸어가 수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도전 성공 때문인지 오늘은 좀 더 강
도 높은 운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평
소보다 2단 높은 난이도를 선택해서 운동을 진
행했죠.
그러나 얼마 못 가 근육통이 찾아와 급한 대로
찜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컨디션이 좋
아도 다시는 무리하지 않겠다며 다짐했습니다.



4일차

“운동은 나의 행복”

즐거운 주말! 회사가 아닌 체육관으로 출근 도
장을 찍으러 갔습니다. 주말 아침이다 보니 평
소보다 체육관이 한산했기에 오늘은 특별히 운
동 사이클을 바꿔봤습니다.
어깨에서 삼두, 하체, 복근 순으로 운동을 하며
케이블을 쪽~ 잡아당기는 기구 운동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을 잡아당기는 순간, 전보다 달라진 손의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에 드디어 몸의 변화가 생긴건 아
닐까요?



5일차

“약속이 날 가로막아도 GO”

어째 잘 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저리 잘
피해 다녔던 모임에 꼭 잡힌 것입니다. 순간 ‘이
대로 도전 포기인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
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기
서라도 운동을 하자’는 생각에 팔굽혀 펴기와
복근운동을 약 2시간 진행했습니다.
비록 체육관에서 하는 기구운동은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대견스러웠습
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고대하며 제 자신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도정록!’



6일차

“팀장님, 얼굴이 환해지셨는데요?”

“와, 그새 몸이
더 좋아졌네요!”
오랜만에 만난
다른 과 직원들
의 칭찬을 들었
습니다. 변화가
없을 거라는 예
상과는 달리, 미
세한 변화가 있
었나 봅니다.
오늘은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요소
들이 많아 평소 운동에 관심 있는 직장 동료들
과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분발했습니다.



7일차

“나에게 운동이란?”

어릴 적부터 숨
이 차도록 뛰어다
니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도 축구
농구 등 어떤 운
동도 마다하지 않
고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켜보면
저에게 ‘운동’은 평생을 함께 한 그리고 앞으로
도 함께 할 동반자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도전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루에 운동 2시간, 한 시
간 내 거리 걷기’도전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단지 시간 떼우기가 아니라 나의 건강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한다면 결코 게으름을
피울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7일 동안 고생한 저에게 ‘수고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생산의 선순환을 이끄는 종합 자원 서비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몸 속 구석구석을 거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혈액 순환이라고 한다. 어느 한 곳이라도 원활하지 못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이러한 점에서 제품의 생산 과정은 우리 몸의 혈액 순환과도 닮아있다.

정해진 루트를 따라 각각의 공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고, 다시 새로운 생산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의 혈(血)은 막히게 된다. 장비의 수리는 물론 회사의 각종 중기계를 운영하며 자재를 운반하고 적재적소에 탑재하는 현대중공업MOS(이하 MOS)가 있어 현대중공업의 생산 과정은 막힘 없이 선순환 할 수 있다.

2016년 8월 각 사업본부의 설비 지원과 장비 지원을 담당하는 부문을 하나로 통합해 출범한 MOS는 생산설비와 중기, 시설물의 유지 보전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의 골리앗 및 집(Jib)크레인, 용접 장비, 공작기계류

노하우를 무기로 최고의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 꿈꾼다!

기계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만 듣고도 문제점을 찾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른다.

바로 현대중공업MOS에는 크레인과 트랜스포터 등 각종 조선업 장비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노하우(Know-how)를 무기로 세계 최고의 설비 보전 및 운영 전문회사를 꿈꾸는 현대중공업MOS를 만나보자.



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설비 보전, △250여대의 크레인을 가동하는 설비 운영, △사업장 내 전력공급설비와 냉난방 설비 등 유틸리티를 관리하는 동력 설비, △건물 및 공장의 신축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 공사, △트랜스포터를 비롯한 중장비 차량을 운영하는 중기 지원 등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 사무동을 근접성이 좋은 서부문 앞 구(舊) 플랜트 본관으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신사업 개발을 위한 사업기획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기존 설비운영 조직을 '외업설비운영부'와 '내업설비운영부'로 나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축적된 경험이 자산이자 경쟁력

창사 1주년을 맞은 MOS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름 아닌 노하우에 있다.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에서 30여년간 설비, 보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들이 모여 MOS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오랜 기간 현장을 중심으로 축적된 직원 개개인의 업무 능력과 경험은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MOS만의 굳건한 경쟁력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아울러 MOS는 출범 직후부터 신입사원 50여명을 선발하며 기술 전수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공채 1기 신입사원 조재철 사우(38세)는 "설비의 미세한 움직임만 보고도 문제점을 찾아내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빠짐없이 배워서 회사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MOS는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시 협의체인 노사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6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직책과장 이상 전 임직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내실 있는 회사로의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또,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2주간 '제1회 MOS배 축구대회'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후 8월 1일, 설립한지 올해로 꼬박 1년이 된 현대중공업MOS는 단계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해외 공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MOS가 오랜 경험과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설비 보전 및 운영 토탈 서비스(Total Service) 사업을 선도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 도약할 앞날을 기대해본다.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소개하는 ‘세계를 가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사보와 함께 즐거운 세계 여행을 떠나 보세요!

융성한 문화와 예술에 가려진 눈부신 경제력!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서 빛나는 문화를 이룩해낸 프랑스는 미술, 건축 등 예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뛰어난 예술적 성과로 인해 프랑스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오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을 선도하는 경제대국으로,
 특히 해운업에 있어서는 세계 3위 수준에 이르는 등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신뢰

프랑스 해운사들은 호주, 아프리카, 싱가포르 선사들과의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선대를 충분히 확보해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3사는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금까지 총 75척의 선박을 수주하는 등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상선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도 프랑스와 깊은 인연을 자랑한다. 프랑스 오일 메이저 토탈(TOTAL)사로부터 수주한 해양플랜트 8기 중, 2010년 토탈사에 인도한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우산(USAN) FPSO’는 당시 국내 최초 순수 우리 기술로 상부 구조(Topside)가 제작돼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 도시나 사계절 내내 매력 만점!

프랑스 수도 파리는 명실상부 1년 내내 최고의 여행지로 꼽히는 대표 관광지다.
 1889년 파리만국박람회(EXPO)를 기념해 세워진 에펠탑은 설립 당시에는 흥물로 취급되는 수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프랑스의 명물로 낮과 밤에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파리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유럽을 호령하는 프랑스의 최절정기 모습을 보고 싶다면, 파리 근교 몽생미셸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보자.
 강력하고 화려했던 태양왕 루이 14세 시절이 고스란히 반영된 이 궁전은 역동적인 바로크 양식과 세련된 로코코 양식이 결합돼 있어 하루 종일 둘러보아도 질리지 않는 ‘꿈의 궁전’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안식처인 파리에는 방대한 역사적 유산과 예술 품이 전시되어 있는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이 있다.
 아울러 몽마르뜨 언덕에서는 매일 꿈을 꾸는 예술가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탄생시킨다.
 프랑스의 소도시들은 파리와는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다. 동부의 스트라스부르는 아름다운 운하 도시로, 일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이 되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프랑스와 독일의 모습이 곳곳에 공존하고 있는 스트라스부르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고흐가 사랑한 도시 ‘아를’을 만날 수 있다. 이 작은 도시에서 고흐는 ‘밤의 카페 테라스’, ‘해바라기’ 등 200여 점의 명작을 남겼다. 아를의 구석구석을 산책하면서 고흐의 그림 속 풍경을 찾아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니스’는 프랑스 현지인들에게도 각광받는 진정한 휴양 도시다. 기원전 2세기 외부의 침략을 막아낸 후 승리의 여신 ‘니케(Nike)’의 이름을 따 니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도시는 1년 내내 지중해의 온화한 기후 덕분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보내온 이야기



대화와 토론의 장이 언제 어디에서나 펼쳐지는 나라.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할 줄 아는 ‘톨레랑스(Tolérance)’의 나라. 프랑스의 색다른 이야기를 프랑스법인 김남모 차장(42세)을 통해 들어보자.

독특하다고 느낀 프랑스만의 문화가 있나요?

프랑스의 행정 처리는 상상 이상으로 느려 소위 ‘복장 터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각종 증명서나 서류 발급 신청 후 수령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집에서 증명서를 땄 수 있는 한국과 크게 비교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수다’ 때문입니다. 행정 관청에서 체류 증명, 운전 면허증 발급 등을 신청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노라면, 앞서 방문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이야기 꽃을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의 관공서에 갈 일이 생긴다면 ‘기다림의 미학’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프랑스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운전 중 갑자기 경찰이 제 차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했는데, 그 경찰은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한 번 했다. 뒤 따라 오면서 지켜보니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 같지 않다. 처음 한 번은 실수인 것 같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프랑스의 ‘톨레랑스(Tolérance, 관용)’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교통 습관을 지켜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비단 프랑스의 관용 문화를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는 사우들에게 특별한 장소나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프랑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장이었지만 주요 문화유산의 소실이 거의 없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적군도 파리의 아름다움에 반해 차마 파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만큼 파리 시내에는 에펠탑, 개선문, 몽마르뜨 언덕 등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파리를 속속들이 즐기고 싶다면 시내를 벗어나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보길 추천합니다. 파리 주택가 사이와 센느 강변을 여유 있게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책 중 출출하실 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빵집(Boulangerie)에 들어가 크로와상(Croissant)과 바게트(Baguette)를 꼭 맛 보세요.
 또 프랑스 특유의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달팽이(Escar-go)와 거위 또는 오리 간 요리인 푸아그라(Foie gras) 역시 한 번쯤 맛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과 기술, ‘최고 자부심’이 낳은 쾌거!

10~40년 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 사회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8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2007.8



▲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1만TEU급 컨테이너선



▲ 현대미포조선 '미포가족 한마음 해변축제'



▲ 현대삼호중공업 신입사원 수련회

2007년 8월 현대중공업은 당시 ‘꿈의 컨테이너선’이라 불리는 1만TEU급 컨테이너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했다. 이 선박은 2005년 중국 코스코(COSCO)사에서 수주한 것으로 길이 334미터, 폭 45.6미터, 높이 27.3미터 규모다.

현대중공업은 2005년 이후로 지금까지 1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110여척을 인도하는 등 최적화된 구조설계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이달 사보에는 현중오피스 및 설문지를 통해 사우 1천75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재미’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사우들은 가장 신바람 나게 일했던 때는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53%)’이며 일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정과 칭찬(30.8%)’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소화해내고, 늘 신바람 나게 생활하고 있는 사우들의 이야기를 풀어 사우들의 자부심과 보람을 엿볼 수 있었다.

현대미포조선은 2007년 8월 관성 하계휴양소에서 ‘미포가족 한마음 해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1천여명의 미포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사우들이 주축이 된 ‘조이밴드’가 즐겁고 흥겨운 음악을 선사했다.

또 ‘사우가족 해변 노래자랑’에서는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 선장부 장봉건 사우가 금상을, 도장부 마용삼 사우와 안미정 씨(장비운영부 김남용 사우 부인)가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달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대졸신입사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46명의 대졸신입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사령장 수여, 격려사, 팀 퍼포먼스,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신입사원들은 준비한 장기를 펼치며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달 말 22일과 29일에는 현대삼호중공업 신입사원 수련회도 열렸다. 신입사원들은 풍등 제작, 바다 래프팅 훈련, 입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정신을 함양’하고, 직장인의 기본 소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1997.8



▲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무결점 선박 1015호선



▲ 현대미포조선 '람폼호' 진수식

1997년 8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조선사업본부가 조선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결점 선박’을 잇달아 건조하며 선주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 실렸다. 이는 1996년부터 시작한 ‘제로 코멘트’ 운동의 결과로, 1척당 평균 3~400건에 이르던 선주 지적 사항을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로 인도해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회사의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달 사보에는 세계 선박 건조 사상 처음으로 대형 유조선에 적용 가능한 쌍축선형 개발 소식도 소개됐다. 쌍축선이란 하나의 선박 본체에 2기의 엔진과 프로펠러를 갖춘 선형으로, 조선사업본부는 노르웨이의 퍼스트 올센사로부터 수주한 15만4천톤급 쌍축유조선의 모형 시험을 성공리에 끝내며 선박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썼다.

1997년 8월 현대미포조선 3도크에서는 노르웨이 PGS사로부터 수주한 해상 부유식 석유 생산, 정제 및 저장선인 ‘람폼(RAMFORM)호’의 진수식이 열렸다. 이날 진수식에는 이정일 사장과 곽대천 노동조합위원장, PGS사 마카엘센 회장과 보세스 사장 등이 참석한 신조선 첫 호선의 성공적인 진수를 축하했다.

람폼호의 성공적인 진수로 현대미포조선의 신조선 사업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임직원들이 신조선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1987.8



▲ 현대중공업 사보 1987년 8월호

1987년 8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現 현대건설기계)는 스킵드 스티어러더 300대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스킵드 스티어러더는 198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건설장비전시회에 출품돼 참관인들의 깊은 관심을 받는 등, 우수한 성능의 중장비로 시장의 호평을 받았다.

1987년 8월에는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이 노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음용기 사장과 중역, 김영환 노조위원장 및 노동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현판식 후에는 전 조합원들과 간단한 막걸리 파티도 가졌다.

1977.8



▲ 현대중공업 사보 1977년 8월호

1977년 8월 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후생복지과를 신설했다. 당시 후생복지과에서는 사택 관리, 공조회 관리, 식권 및 식당 관리, 피복 지급 등 후생복지에 관계된 제반 업무를 수행했는데, 현재 총무부 후생복지과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이어서 이달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울산공업전문학교(現 울산과학대)에 재학중인 사우들을 위해 회사에서 학비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실렸다. 조선업계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973년 개교한 울산공업전문학교는 이후 울산과학대학으로 발전, 울산을 대표하는 대학 중 한 곳으로 자리잡았다.

‘교통 통제-빠른 신고’ 기지 발휘해 큰 사고 막은 산업보안 파수꾼들



지난 6월 25일 새벽 회사 앞 도로에 지름 6미터, 깊이 2미터의 싱크홀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문 초소에서 근무하던 총무부 산업보안과 이성룡 사우(51세)와 김두현 사우(46세)는 도로 쪽에서 들려온 ‘쿵’ 하는 소리에 재빨리 출입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주변을 살피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다. 잠시라도 멈칫했다가는 차량의 전복사고 등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이라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야간 과속 주행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두 사우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도로 진입해 차량 통제부터 실시했다. 생전 처음 보는 사고에 두려운 마음이 들 법도 했지만, 머리 속에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강렬했다.

김두현 사우는 “땅이 꺼진 곳을 살펴보니 추가적인 지반 붕괴 가능성이 있었다”며, “일단 싱크홀 근방으로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 이성룡 사우와 함께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두 사우의 발 빠르고 현명한 대처 덕분에 아무런 피해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에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현대중공업 문화관에서 재빠른 조치로 2차사고 및 인명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해 이성룡·김두현 사우에게 동부경찰서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성룡 사우는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며 “울산 시민으로서 또 현대중공업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그는,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그 광경을 봤으면 누구든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청과 동구청도 신속한 대처와 신고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 두 사우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현대중공업 역시 사우들의 안전한 출퇴근길 확보에 힘 쓴 두 사람에게 지난 7월 19일 재해예방 공로상을 시상했다.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시선을 피하는 일이 많아진 요즘,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현장에 달려든 두 사우의 희생정신이 더욱 값지게 여겨진다.

‘으라차차’ 들배지기로 소년장사 ‘등극’

대한민국 민속정기인 씨름을 다시 일으키려는 소년장사가 있다. 현대미포조선 의장1부 최상훈 사우의 큰 아들인 최윤서 군(13세)이다.

방어진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최군은 지난 5월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남자 씨름 초등부 소장급(40~45kg)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역전승만큼 명승부는 없다고 누가 말했단가. 최 군은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첫 번째 판을 내주고도 나머지 두 판을 내리 따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최 군은 올해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자신의 이름을 전국에 널리 알렸다.

게다가 지난 3월 ‘제47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해 2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내며 정상에 올랐다.

최 군은 4학년 때 체격에 비해 힘이 센 점이 씨름부 감독의 눈에 띄었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씨름을 시작하게 됐다. 씨름 입문은 비교적 늦은 편이지만, 울산현대호랑이축구단 유소년팀 활동을 하며 얻은 체력을 바탕으로 놀라운 속도로 씨름 실력을 늘려갔다.

월등한 신체로 밀어붙이는 씨름판에서 몸집이 작은 최 군이 살아남기 위해선 힘보다 기술이 중요했다. 씨름 기술에는 크게 ‘낮춤 씨름’과 ‘들어 넘기는 씨름’이 있는데, 덩치가 작은 최 군에게는 낮춤 씨름이 적합했다. 최 군은 뛰어난 균형감각을 활용해 계속해서 낮춤 씨름을 연습했다.

이와 더불어 최 군은 체급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자기보다 높은 체급의 선수와 연습경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전국소년체육대



회를 대비해 참가한 대회에서는 한 계급 올려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거는 값진 성과를 냈다.

사실 최 군은 지난 동계 전지훈련을 보내면서 기량이 일취월장했다고 한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 동안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미룬 채,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연습 삼매경에 빠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한 최 군에게 올해 메달 획득은 그 누구보다 간절한 소망이었다.

마침내 최 군은 지난 5월 충남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내며 단숨에 소장급 ‘다크 호스’로 떠올랐다.

최윤서 군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며 “처음 살바를 잡을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 덕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버지 최상훈 사우는 “윤서가 씨름을 하기로 했을 때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해 응원하기로 했다”며, “사실 금메달보다 더 값진 것은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는 아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표 민속놀이인 씨름의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만기, 강호동 등 불세출의 스타들처럼 최고가 되겠다는 최 군. 전국 강호를 제압하고 새로운 천하장사가 될 최윤서 군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아이 기르기 더 좋아졌다!

‘젊은 도시’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건립됐다.

센터는 우수한 보육시설을 내부에 갖추고, 본격적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종합 보육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육아’ 실현

1997년 10월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 내 개소한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95개소 중 최소 규모(72제곱미터)로 운 영돼왔지만 개관 20주년을 맞아 동구 진하동에 연면적 4천 94제곱미터(약 1천238평),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새로이 개관했다.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기존 시설은 공간이 협소해 육아 상담, 교사 교육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센터에는 장난감 대여실, 그림책 대여실, 영유아 체험실 등의 시설과 다목적 교육실 외에 울산 전역의 보육 교직원도 참석할 수 있는 300석 규모의 대강당이 구축돼 있어 보다 포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 양육 지원, 상담 지원, 구·군센터 통합 지원, 연구형 어린이집 운영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단계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놀이·미술·언어 치료실 운영을 통해 상담-검사-치료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특수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보호자까지 만족시키고 있다.

한편, 센터 2층에는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자리 잡고 있어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했던 지역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를 위한 완벽한 시설 ‘이모저모’

장난감 대여실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맞춰 전문가가 직접 장난감을 추천해 준다. 놀이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제 및 영역별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장난감 대여실 바로 옆에는 그림책 대여실이 자리잡고 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림책도 볼 수 있도록 연관된 교육을 제공한다. 그림책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무료로 1회 5권까지 대여 가능하다.

전문가가 아이와 부모의 노는 모습을 관찰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놀이 체험실도 있다. 규모는 작지만 전문성 있는 공간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놀이 치료와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양육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일이 생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실도 마련됐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시간 단위로 돌봐주며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내면 된다. 동구에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차일드 벨트’ 구축을 목표로 울산 내 육아 관련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는 센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작이 이들의 꿈이라 한다.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면에서 지원할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응원한다.

취재 이승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
문의 전화 ☎ 052-266-4173
홈페이지 <http://ulsan.childcare.go.kr/>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강연

인문학 서적 베스트셀러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하 지대넓얏)’의 저자이자 동명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작가 채사장(본명: 채성호)이 지난 7월 5일 인재개발원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사우들을 만났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인문학 특강은 상상 이상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사내 게시판에 특강 공지를 올린 지 하루 만에 강당의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신청이 접수된 것은 물론, 강연 당일에도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뜨거운 환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강연을 시작한 채사장은 먼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렵고 지루한 인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책을 읽었다”며 “죄와 벌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책이었지만, 지식이 아닌 재미를 찾으며 읽었기 때문에 책 속에 담긴 어렵고 불편한 지식이 나를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서 채사장은 “자녀에게 무조건 책을 읽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강연을 찾아준 학부모 사우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



“책은 30대를 넘어서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축적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 속의 교훈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과생에게는 사회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대넓얏’을, 문과생에게는 공감을 통해 새로운 학습방향을 제시해주는 ‘열한계단’을 읽어볼 것을 추천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특강은 사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더욱 값진 시간이 되었다. 사우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나누어 토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찾기 위해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가족과 함께 인재개발원을 찾은 안재균 기원(56세, 현대중공업 해양품질경영부)은 “좋아하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날 수 있어 기뻐다”며, “오늘 특강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잠시 잊고 지냈던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인문학에 대한 현대중공업그룹 사우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인문학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기 작가 '채사장'의
뜨거웠던 강연 현장으로
블로그 'hi,hhi'와 함께 떠나 보세요!



일출과 낙조가 아름다운 ‘스카이워크’

청사포 마을은 송정과 달맞이 고개 사이에 있는 작은 포구다. 부산에 속해 있지만 도시의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는 아담한 마을이다.

이 작은 마을에 바다를 향한 것인지 하늘을 향한 것인지 보는 각도에 따라 펼쳐지는 장관이 달라지는 거대한 ‘전망대’가 들어섰다.

해송보도교에 도착하면 청사포 마을과 바다를 지키는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가 한 눈에 들어온다. 길을 따라 바닷물에서 튀겨 나올 것 같은 물고기 벽화들이 이어진다. 좁은 골목, 나지막한 돌담, 담장 위에 곱게 익어가는 복숭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코끝을 자극하는 바다 냄새를 따라 전망대로 향해 본다.

전망대는 청사포 철길 공영주차장에서 왼쪽으로 동해 남부선 폐선을 따라 가면 된다. 가는 길에는 상추, 가지, 고추, 오이, 토마토, 옥수수들이 웅기종기 모여있고, 포도, 감, 무화과들이 여름을 빛낸다.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잠자리 매미 나비들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새 전망대에 다다른다.

전망대는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20미터, 길이 70미터로 설치됐다.



전망대 바닥의 중앙은 나무데크를 깔았고, 그 양쪽으로 유리를 깔아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분이 든다. 청사포 마을을 지켰다는 설화 속의 푸른 뱀을 형상화해 전망대를 유선형으로 만든 점이 흥미롭다.

청사포 서쪽 언덕 아래에는 300살이 넘는 큰 소나무가 있는데, 바다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하여 ‘망부송’이라 부른다. 이 전설 속에 다른 아님 청사(靑蛇)가 등장하는데, 청사포 지명

이 이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현재는 청사(靑蛇/푸른 뱀)를 청사(靑沙/푸른모래)로 의미를 바꿨지만, 마을을 지키는 망부송에 깃든 전설을 살려 전망대를 만들었으니 더욱 의미 있어 보인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망부송과 등대를 둘러보고 바닷가에서 게를 잡아 보는 것이 좋겠다.

전망대 끝에 서니 바람이 먼저 몸을 맞는다. 고개를 돌리면 송정과 달맞이 언덕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해운대의 12경 중 하나인 아름다운 일출과 낙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8월말 개장 예정인 부산 최대 규모의 스카이워크에서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을 만끽해보자.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청사포 다릿들 전망대 조감도

‘맛’과 ‘멋’이 가득한 전통 시장의 부활!

동남아에 명물인 ‘야시장 문화’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야시장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47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 남구 수암 전통시장이 지난 5월 ‘수암 한우 야시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전통 야시장 공식 8호점으로, 한우를 특화한 전통 야시장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즉석에서 구워 먹는 한우의 맛

개장식이 열린 지난 5월 19일, 수암 한우 야시장에는 7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하며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야시장은 총 80개의 엄선된 매대가 310m 가량 이어져있는데, 매대의 특성에 따라 총 3개 구간으로 나뉘져 있다.

제 1구간에는 신선한 한우를 값싸게 구입해 즉석에서 구워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있다. 시장 내 정육점 14 곳에서 고기를 구입하고, 인원당 '초장값'을 내면 시장 통로에 놓인 테이블에 불판과 각종 밑반찬 및 양념 등을 마련해 준다.

특히 야시장이 열리는 주말 저녁엔 상인회에서 공동 구매한 '1+1' 상 등급의 한우를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붐빈다.

꽤 찬 테이블 위에는 한우 구워지는 소리와 냄새, 모습이 삼위일체가 되어 행인들을 유혹해 그냥 지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다. 가족, 친구 등 정다운 이들과 맛있는 한우를 먹는 사람들의 표정에 행복함이 가득하다. 다른 전통시장에는 볼 수 없는 수암 야시장만의 풍경이다.

안 먹고는 못 배기는 '이색 메뉴' 열전

2구간에 마련된 퓨전 음식거리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점한 가게들이 모여 있다. 엄격한 서류심사와 품평회를 통과한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해초로 만든 '일본 물방울 떡'은 줄이 길게 늘어설 만큼 인기 메뉴다. 콩가루와 함께 쓱쓱 비벼 떠먹으면, 말랑말랑한 촉감과 함께 콩가루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있는 메뉴도 있다. 탱탱한 당면이 형형색색의 채소, 고기와 섞여 있는 잡채 김밥과 삼겹살, 풍치를 넣은 김밥 등 맛이 궁금해지는 메뉴가 선을 보이고 있다.

질 좋은 제품, 저렴한 가격에 눈길...

구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3구간 체험 거리는 매대마다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

1, 2구간과 달리 맛있는 냄새로 유혹하진 않지만 멋스러운 제품들



이 마련돼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핸드메이드 퀼트 가방, 모자 등 예술인의 정성이 담긴 공예품과 패션 소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만원만 내면 '썩썩' 재미있게 얼굴을 그려주는 캐리커처(Caricature)부터 가볍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타로점까지 가족,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길거리가 요소마다 준비하다.

수암 상가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강응규 씨는(43세) "할기 넘치는 시장을 만들

기 위해 상인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다"며 "긴 여름밤 수암 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오감을 충족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암 한우 야시장은 지역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과 도보로 5분 거리인 홈플러스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차 문제를 해결한 것도 그 중 한 사례다.

무더운 여름밤, '맛'과 '멋'이 살아있는 수암 야시장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보자.

원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수암 한우 야시장

주소 울산 남구 수암로11번길 6 (수암 상가시장)

영업시간 매주 금, 토요일 저녁 7시 ~ 11시

문의 (052)226-5651, 275-4041



태화강 푸드트럭

강변을 따라 15대의 푸드 트럭이 나란히 늘어선 모습을 보고 있으면 흡사 어느 외국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파는 음식들도 이국적인 모양과 잘 어울리는 메뉴로, 네덜란드산 치즈를 듬뿍 올린 스테이크, 하와이안 쉬림프, 라멘, 아메리카노 등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이 좋아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이곳을 찾는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도란도란 간이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다 보면, 긴 여름밤의 매력을 절로 느낄 수 있다.

주소 성남동 둔치 공영 주차장 부근

영업시간 오후 4시 ~ 11시(동, 하절기 탄력적 운영) / 매주 화요일 휴무



8가지 종류의 맥주, 골라먹는 재미 '쏟쏟'

울산 언양에서 경주 봉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주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빨간 벽돌 건물이 눈에 띈다.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풍기는 이곳이 바로 영남권 최대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 생산지 트레비어(Trevier) 브루어리(Brewery/수제 맥주 양조장)다. 트레비어는 요식업에 종사했던 황동환 대표가 독일 여행 중, 뮌헨 비어가르텐을 방문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3년 삼산동에 트레비 브로이하우스를 오픈 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모태로 수제 맥주의 외부 판매가 가능해진 2014년, 언양에 맥주 공장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특히 이곳은 브루마스터(Brew Master/소규모 맥주 양조장에서 맥주제조의 전 공정을 관리하는 양조기술자)를 초청해 장비를 세팅하고 오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균 일한 맛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루어리 중 한 곳이다.

트레비어 브루어리는 총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건물엔 사무실이 있고 뒷 건물엔 양조장과 시음장, 보관창고가 자리잡고 있다. 아담한 규모의 시음장 안으로 들

맛있는 수제 맥주 한 잔 어때요?

맥주는 언제 마셔도 참 좋지만, 특히나 요즘은 맥주 마시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이면 폭폭 찜는 더위로 지친 하루의 피로와 갈증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 말이다.

수원지와 제조원에 따라 물 맛이 다르듯, 맥주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 각양각색 천차만별의 맛이 난다.

'수제 맥주'가 전성기를 맞고 있는 지금, 맛의 지평을 열어줄 언양의 특별한 수제 맥주 공장을 소개한다.



어가니 특유의 홉 냄새가 진하게 풍겨온다.

이곳에서는 한 잔에 3~5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예쁜 잔에 맥주를 담아줘, 신선한 맥주의 맛을 느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 8종의 맥주 제품과 함께 시즌별로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도 선보인다. 하얀 거품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맥주들은 각 종류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우선 시원하고 깔끔한 목 넘김의 '필스너'와 붉은 맥아를 사용해 고소함과 풍부한 거품이 일품인 흑맥주 '둥켈', 실크처럼 부드러운 거품이 고급스러운 '임페리얼스타우트', 달콤한 바나나향을 느낄 수 있는 '바이젠'과 새콤달콤함이 특징인 '세종', 상쾌한 청량감이 다양한 향을 더해주는 '호피라키'와 감귤류의 향미와 홉의 짹짹함이 어우러지는 밝은 오렌지 빛의 '페일에일', 마지막으로 씹쓸하지만 깔끔한 피니쉬가 좋은 '인디아페일'에일까지 각자의 취향에 따라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호피라키'는 지난해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됐을 만큼 큰 인기를 받았던 제품이다. 조직위원회 및 관계자들이 울주군을 대표하는 지역 맥주를 찾던 중 발견하게 된 쾌거였는데 호피라키에서 풍기는 은은한 술향과 꽃향이 울주의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겨울철에 판매될 시즌 상품은 현재 오크통에서 숙성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기는 '테이크 아웃'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다소 불편해 이 곳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자차를 이용한다. 하지만 '트레비어'에서는 운전자도 신선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비밀은 '테이크 아웃'에 있다.

1L(리터) 기준 한 병에 7천원~1만원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이라 구입하는 부담도 적다. 트레비어 마크 스티커가 부착된 예쁜 전용 페트에 포장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현재 트레비어는 십여 년의 전통을 가진 삼산동 '트레비 브로이하우스'에 이어 얼마 전 일산지 테라스파크에 트레비어 일산점을 오픈했고, 유곡동 혁신도시에는 좀 더 젊은 감각의 세컨드 브랜드 수제 맥주바 '로컬 크래프트'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또한 현대호텔울산 뷔페 레스토랑에 생맥주를 납품하고, 지난 달부터는 KTX 울산역사 안 특산물 판매코너에서도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등 점차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트레비어 브루어리에서도 현재는 시음과 판매만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장투어나 테이스팅 클래스 및 취미로 크래프트 맥주를 즐기는 고객들을 위한 홈브루잉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고객들이 수제 맥주를 쉽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채널을 늘려나갈 계획인 것이다.

맥주의 고향 '독일' 어딘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수제 맥주 공장 트레비어. 다양한 맛과 향 그리고 멋스러운 분위기까지 즐길 수 있는 이 곳에서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을 즐기며,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보면 어떨까.

최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맥주 더 맛있게 즐기!

맥주 애호가들은 전용잔에 따라 마셔야 맥주의 제 맛이 난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맥주 맛은 잔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바이젠이나 필스너는 긴 잔에 담으면 거품이 풍성하게 유지되어 청량감이 살아나고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같이 향이 강한 맥주는 둥근 잔에 담으면 향이 모여져 풍미를 오래 느낄 수 있다.

언양 트레비어 브루어리

주소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1305-2

영업시간

평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저녁 7시,

일요일 오전 10시 ~ 저녁 7시

문의 052)225-1111

올 여름 짜릿함에 빠지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기분은 다운되고 의욕마저 잃기 쉬운 여름이다.
이럴 때 색다른 스포츠 명소를 찾아 활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껏 몰랐던 이색 스포츠의 매력이
당신에게 즐거움과 스릴, 건강을 선물할지 모른다.

바람에 몸을 맡긴다! 단양 패러글라이딩



작열하는 태양 아래,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파란 하늘을 누비다 보면 저절로 환호성이 터진다. 발 아래로는 남한강의 비경과 함께 시원한 시가지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단양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로 연중 동호인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패러글라이딩은 날씨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단양 양방산은 지형과 기후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에 적합해 연간 300일 정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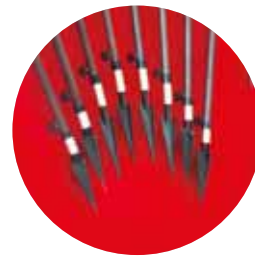
또한 이 곳은 비행 당일,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활공장 양쪽으로 이륙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활공장과 활공 연습장, 초경량 항공기 활주로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단양패러마을 | 문의 ☎ 043)421-3326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 국내 이색 스포츠들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활 쏘기!



‘둑’하는 소리와 함께 반달 모양의 활을 떠난 화살이 ‘탁’ 소리를 내며 산자락에 꽂힌다. 뒤로는 인왕산, 앞으로는 서울 시내의 멋진 경치를 두고 활을 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물론 정신 수양도 저절로 된다.

국궁(國弓)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데, 서울에만 10여곳, 전국 380여곳에 국궁장이 있어 어디서든 쉽게 체험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서울 사직공원 내에 위치한 황학정은 대한민국 국궁 1번지로 통한다. 1899년 고종황제의 어명을 받아 조성된 이 곳은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황학정 내 국궁 전시관에는 국궁의 역사와 우리 활의 우수성, 활 쏘기 문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과 자료 등이 전시돼 있으며, 전통 활 제작 체험과 활 쏘기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 황학정 | 문의 ☎ 02)738-5784

영남알프스에서 즐기는 ‘아슬아슬’ 클라이밍



지난 5월 암벽등반선수로 맹활약 중인 김자인 씨가 맨손으로 123층 높이의 고층빌딩을 올라 큰 화제를 모았다.

클라이밍은 오로지 두 손과 두 다리로만 온 몸을 지탱해야 하는 만큼, 아슬아슬하고 거칠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생부터 노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한다.

또한 클라이밍은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군살을 빼는데 효과적이고, 한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깊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2016년에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암벽장

인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곳에서는 각종 국내 대회가 개최되는 한편 난이도, 스피드, 볼더링 등 총 20개의 코스를 갖추고,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 | 문의 ☎ 052)254-0270

서울 한강에서 느껴보는 윈드서핑의 매력



윈드서핑은 360도 회전하는 돛을 세우고 사람이 보드 위에 올라타 바람을 이용해 파도를 타는 스포츠다. 수상 스포츠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윈드서핑은 주로 바다에서 즐기지만, 서울 독섬 한강공원에서도 경험해볼 수 있다.

특히 이곳에는 서울시 생활체육회 윈드서핑 연합회 소속 클럽 50여곳이 상주하고 있어 초보자라도 손쉽게 윈드서핑을 배울 수 있다. 초보자도 며칠만 강습을 받으면 물에서 자유 자재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 무더위로 지친 여름에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다.

아울러 서울시 광진구 독섬한강공원 내 ‘서울윈드서핑장’에서는 매년 ‘가족 수상 스포츠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 단위로도 윈드서핑을 배울 수 있다.

| 서울윈드서핑 교실 | 문의 ☎ 02)457-3773

‘스릴 만점’ 통영 루지 체험



루지는 썰매에 누운 채 얼음 트랙을 활주하며 시간을 겨루는 겨울 스포츠다. 하지만 올해 초 통영에 개장한 스카이라인에서는 겨울이 아닌 여름에도 루지를 즐길 수 있다.

특수 제작된 카트를 이용해, 해발 110m 높이의 산 정상에서 1.5km 구간을 타고 내려오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발 아래로는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다.

통영 스카이라인은 직선, 곡선, 원형 등 다양한 트랙 코스를 갖추고, 카트 조종법이 간단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루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 스카이라인 | 문의 ☎ 070)4731-8473

싱그러운 초록빛 목장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기

여름방학은 자연 학습을 하기에 안성맞춤의 시간이다.

무더위를 피해 하루 종일 에어컨의 찬바람만 쐬면서 무기력해지기 쉬운 날, 몸을 일으켜 목장으로 떠나보자.

아이들은 동물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사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배우게 되고,

어른들은 넓은 초지를 걸으며 간만의 여유를 갖기에 충분하다.

푸른 초원에 펼쳐진 '그림 같은 목장'

이름만으로도 시원한 파도목장은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가지런히 잘 정돈된 푸른 잔디밭과 목장의 끝자락 출렁이는 바다는 그야말로 그림같이 어우러진다.

이곳에는 50여 마리의 건강한 소들이 풀을 뜯으며 푸른 초원을 자유로이 뛰어다닌다. 지난해까지 200여 마리의 소를 키웠는데 체험 방문객과 캠핑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져서 50여 마리로 줄이게 되었다고 한다.

오감으로 느끼는 최고의 '자연 공부'

목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송아지에게 우유주기를 체험할 수 있다. 우유 먹이는 방법을 배우고 우유통을 송아지에게 가져가면 냄

새를 맡은 송아지가 덩석 우유통을 물고는 힘껏 빨아댄다. 알록달록한 송아지가 쪽쪽 소리와 함께 큰 눈을 깜빡거리며 우유를 빠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무섭다고 다가가지 못하던 아이들도 연신 귀엽다는 감탄을 쏟아낸다.

우유를 다 먹고 나면 축사로 장소를 옮겨 다 자란 젖소에게 먹이를 준다. 잘 말린 건초를 긴 혀를 내밀어 잘도 받아먹던 소가 '음모~' 하고 울면 아이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눈만 깜빡이다 겁먹은 모습을 들켜 쑥스러운 듯 서로 깔깔대고 즐거워한다.

맘을 뽐뽐 흘리고 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체험은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아이스크림 재료를 담은 통을 얼음-소금과 함께 파란 단열가방에 넣고 10여분 신나게 춤을 추듯 흔들어주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완성된다.

특별한 기계도 없이 얼음과 소금만으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과학적 원리를 배우고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맛본다. 별다른 첨가물 없이 목장에서 갓 짜낸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시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한 맛이다.

또 직접 치즈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치즈를 얇게 펴서 늘이고 소금을 뿌린 후 모양을 만드는데, 행여 찢어질까 조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냥 귀엽다.

그리고 파도목장은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 갯벌 체험도 가능하다. 울퉁불퉁한 논길 위를 달리는 트랙터는 이 순간 신나는 놀이기구로 변신한 듯 덜경거리는 트랙터에는 어른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낙조' 바라보며 또 하나의 추억 쌓기

일몰의 장관을 본 체험객들의 작은 바람으로 시작하게 된 캠핑장 운영은 목장 체험만큼 인기가 좋다. 성수기에는 푸른 잔디밭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텐트가 세워지는데,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하므로 일찍 캠핑장에 도착하면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드넓은 초원을 마음껏 뛰노는 자유를, 어른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선사하는 파도목장에서 자연과 소통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자.

최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울산 신우목장



주소 울산 울주군 두서면 아미산로길 34
체험 내용 우유공장 견학 및 산양 젖 짜기 등
비용 체험비 2만5천원, 견학비 1만2천원
예약 문의 052)264-9332



전남 무안 파도목장

주소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910번지
비용 목장 체험 1만5천원, 캠핑 체험 1만3천원
예약 문의 061)453-6193, 010-7142-7496



끝없는 가난과 병마와의 싸움, 온정(溫情)의 손길 절실!

동구 일산해수욕장 바닷가길 교회 한 켠에 딸린 방.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한 그 곳에 김명수 씨(56세, 동구 일산동)가 우두커니 앉아있다.

머리가 달을 듯한 천장, 바람이 세게 불면 금새 날아가버릴 듯한 허술한 구조에 한 여름의 거센 폭우가 걱정될 따름이다.



삶의 시름이 내려앉은 어두운 방

엇그제 신장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는 김명수 씨는 몸 상태가 안 좋은 듯 연신 불편해 보였다.

생활한지 3년이 되어간다는 방은 플라스틱 지붕으로 살짝 덮여 있었는데, 그마저도 천장 일부가 구멍이 뚫려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 여름 더위에 시원하게 목욕 한번 하면 좋으련만, 수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목욕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한다. 그나마 신발장 옆 자그마한 수도꼭지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며 더위를 버티고 있다.

수도시설이 미비하니 입었던 빨래도 제때 하기 어렵고, 식사 한끼 만들고 치우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눈에 보기에도 살림을 하기에는 턱없이 협소하고 불편한 공간이다.

하지만 이 공간만이 김명수 씨가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다. 월세는 한 달에 한번 수도, 전기세를 포함하여 5만원 가량을 교회 목사님께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환기도 여의치 않은 곳에서 선풍기 한 대로 30도가 넘나드는 여름을 버텨내기가 벌써부터 힘겨워 보였다. 간간히 내쉬는 얇은 한숨에 김명수 씨의 삶의 시름이 느껴졌다.

교통사고 후 시작된 불행의 연속

경기도 안성이 고향이라는 김명수 씨는 1990년대 초반 한양화학(現 한화케미칼)에서 근무하며 울산과 인연을 맺게 됐다. 혈기 가득했던 젊은 시절,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희망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고, 김명수 씨의 삶에 불행이 끼어들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간 일부를 소실하고 신장 역시 망가지는 등 아픈 몸으로는 더 이상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그 후 법인 택시를 12년 운행하고 11년 무사고로 개인택시까지 받게 되었지만 빚 보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기에 가



삶을 위협하는 끝없는 불행에
김명수 씨는 얇은 한숨만 내 쉴 뿐이다.

정불화까지 겹쳐 아내와 이혼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도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

이혼 후 혼자 살며 사무치는 외로움에 술을 마시는 등 방황을 하기도 하였으나 지난해부터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며 성실히 생활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급성신장손상으로 한쪽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등 끝없는 불행이 김명수 씨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악화되는 건강... 암담한 미래

김명수 씨는 오는 5년간 주 3회 꾸준히 투석을 받고 경과를 지켜 봐야 한다며 통통 부은 왼쪽 팔을 내보인다. 투석관을 삽입한 흔적이 가득한 팔은 각질이 떨어지고, 코끼리 피부처럼 거칠어졌다. 여기에 극심한 가려움증이 더해져 저녁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병원 처방전과 함께 수북이 쌓인 약봉지들이 좁은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눈에 띈다. 식전, 식후 먹어야 하는 약은 많은데 실상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하루에 두 끼 정도, 죽지 않을 정도로만 간신히 먹고 있는 형편이다.

자활센터에서 자동차 부품조립을 할 때는 부수입이 있으니 그나마 나았는데, 지금은 그 일조차 할 수 없으니 생계가 막막하다. 다행히 조건부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월 48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하나 남은 우측 신장도 말기 신부전 상태라 앞으로 자활센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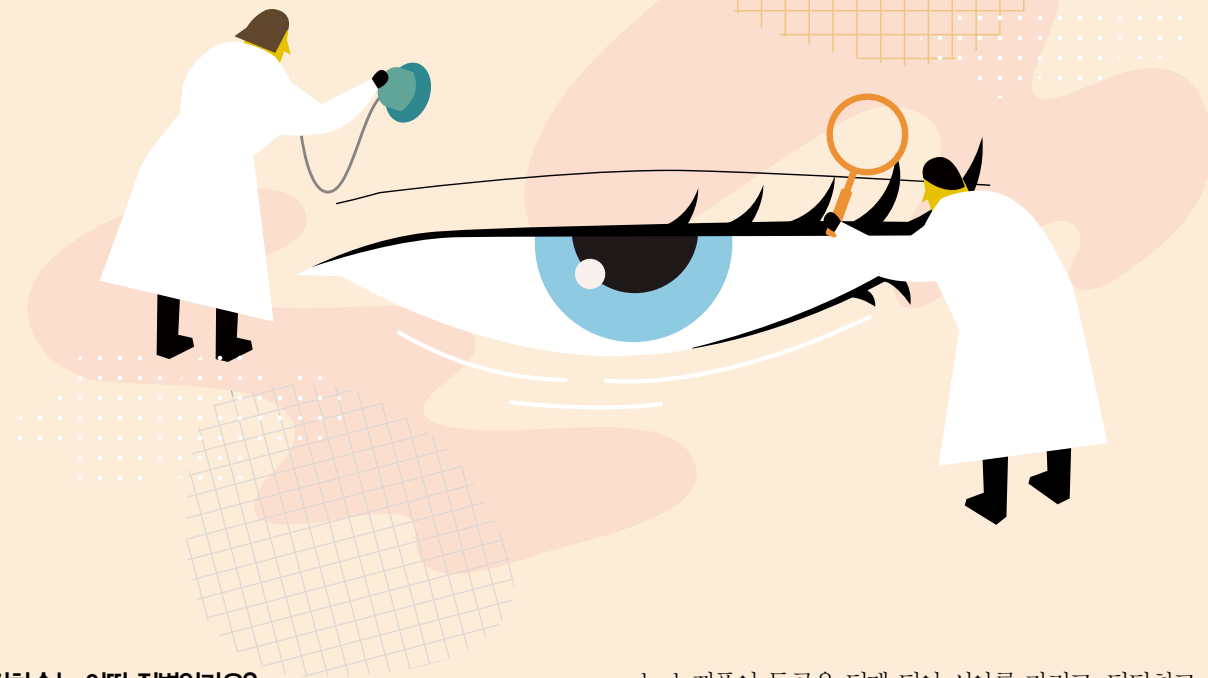
수술 후 거동조차 힘들어져 이틀에 한번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갈 때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있다는 김명수 씨는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처럼만 유지가 되도 좋겠습니다”라고 나지막하게 말한다.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김명수씨의 두 평 남짓한 보금자리에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도움 계좌 농협 356-0820-0124-53 (예금주 : 김명수)

축~ 처지고 졸린 눈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평소 ‘졸려 보인다’, ‘눈이 게슴츠레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안검하수를 의심해 보자.
오랜 기간 방치할 시 영구적인 이마 주름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시력 저하도 야기 될 수 있다.



안검하수는 어떤 질병인가요?

안검하수는 정면을 볼 때 위눈꺼풀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처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눈꺼풀의 높이는 검은 눈동자를 1~2mm 정도 덮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처지면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눈이 작아지고 항상 졸린 눈처럼 보이는 경우, 양쪽 눈 크기가 차이가 심하고 쌍꺼풀이 짝짝이인 경우에 안검하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나요?

눈꺼풀이 처지면 피부도 처지면서 접히는 부분에 눈물이 고여 피부가 짓무르고 쓰라리기도 합니다.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에

는 눈꺼풀이 동공을 덮게 되어 시야를 가리고, 답답하고, 졸려 보이는 인상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눈을 사용하지 않아 약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처졌음에도 자꾸 눈을 크게 뜨려고 애쓰다 보면 눈썹이나 이마를 올려서 보게 돼 이마에 주름이 깊어지고, 두통이나 안구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 주름이 영구적으로 깊어지며, 만성 두통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발생시기에 따라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인 경우가 많고,

어른은 후천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근육 자체의 발달 이상으로 생기기 쉽고, 중증근무력증 등 근육병이 생기는 경우 시시때때 변하는 양상을 보이며 젊은 나이에 도 안검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천성의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눈꺼풀 올림근의 널힘줄)이 늘어나거나 부작된 눈꺼풀판으로부터 떨어져 발발하는 퇴행성이 주를 차지합니다.

이외에는 외상, 눈수술, 반복적인 눈꺼풀 부종, 콘택트렌즈의 장기 착용, 스테로이드 안약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인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기도 합니다.

안검하수에도 종류가 있나요?

안검하수에는 '진성'과 '가성'이 있습니다. '진성'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에 힘이 떨어져 눈꺼풀테 자체가 처지는 것이고, '가성'은 눈꺼풀 근육에 붙어있는 피부가 처지고 덮혀서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가성'의 경우에는 처진 피부를 살짝만 들어보면 눈꺼풀 높이가 정상임을 알 수 있지만, 실제 이 둘을 혼동하는 분이 많고 의사들도 구분이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안검하수가 생긴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교정되지 않고, 수술로 교정을 해야합니다. 수술은 크게 이마근절기술과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눈꺼풀 근육의 기능을 재서 근육의 기능이 나쁘면 눈꺼풀 자체를 이마근에 걸어주는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눈꺼풀 기능이 좋다면 본인의 눈꺼풀 근육을 이용한 수술을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통해 안검하수를 치료할 순 없나요?

쌍꺼풀 수술이나 눈꺼풀 성형술은 안검하수 교정술과 수술하는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눈꺼풀 성형술은 일반적으로 피부만 제거하고 쌍꺼풀을 만들지만, 안검하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깊이 위치하는 눈꺼풀 올림근을 강화해주고 교정해주는 수술이기에 시간이 더 길고, 수술 방법 또한 더 어렵습니다.

안검하수 증상이 있음에도 단순히 눈을 키우고자 쌍꺼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라인이 두껍고, 눈 모양이 어색해져 기능뿐만 아니라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검하수 수술 후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눈이 커지기 때문에 잘 때 눈을 살짝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일시적인 증상이지만 안검하수가 심했거나 눈꺼풀 올림근 기능이 나뉘수록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초반에는 안과 검진을 받고 인공눈액과 연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안검하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피부는 매우 얇기 때문에 눈을 자주 비비거나 자극을 주는 행동은 피하고, 햇볕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렌즈를 무리하게 장기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고, 쌍꺼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액체나 스티커 사용은 눈꺼풀 피부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이주향 교수 (울산대학교병원 안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라!

‘코끼리가 우물의 물을 먹었다. 여우가 그 흉내를 내면서 우물물을 마시려다가 우물에 빠졌다. 그것을 보고 코끼리는 자기의 긴 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았다.’

위 우화처럼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는 이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험사리 헤어 나오지 못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만다.

열등감이란?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신이 뒤떨어졌다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을 의미한다.

주로 성장과정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도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지만 열등감이 심할 경우에는 불안 심리를 동반하기도 한다.

열등감을 버리면 자신감이 찾아온다

열등감 극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 그 불편한 상황을 그려보며 마음 수련을 거듭하는 게 도움이 된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굳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스로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열등감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게 되고,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나’를 인정하고 격려하자

열등감은 마음을 좀 먹게 하는 ‘곰팡이’와도 같다.

잘하고 있어! 좋아!

글 서상숙 상담사(현대삼호중공업 마음정원)

발표 잘하는 김대리... 너무 부럽다

재는 왜 이렇게 예뻐?

아~ 나는 언제 내 집 마련하지?

‘열등감’을 극복하는 5가지 실천법



열등감을 유발하는 콤플렉스를 바로 보라.

당신은 이미 오래 전에 이겨내고 고쳐낸 단점들 혹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단점에 지금까지 목매고 있지는 않나?

그러나 거대해 보이는 열등감의 핵은 의외로 작고 사소하다. 또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잊지 말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라.

과거 혹은 현재의 상처가 열등감을 만들었다면 성공적인 미래와 충실한 현재의 삶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충실히 노력하자. 노력은 자부심을 만들어낸다.

스스로의 삶과 일상에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면, 열등감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진다.



나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칭찬하라.

열등감 때문에 자신이 작고 하찮아 보인다면, 지금부터 매일 거울을 보며 나와 내 주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보자.

사소해도 좋고, 타인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이라도 좋다. 남들보다 예쁜 발가락, 남들보다 예쁜 머그컵을 찾아내는 센스 등 작은 칭찬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완벽한 나’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추구하라.

‘완벽한 나’라는 목표는 허상(虛像)이다. 존재하지 않는 하깨비를 쫓아 끝없는 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는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낄 수 없고,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도 부족하게만 느껴진다. ‘완벽한 나’에 다가가려는 노력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보자.



주변에 베풀고 봉사하라.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을 때의 행복감을 웃돈다.

베풀음은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이며,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당신의 힘으로 타인을 돕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껴보자.



해외 발전 신사업 공동 개발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한국전력과 함께 발전 관련 신사업 개발에 나선다.
3사는 6월 29일 서울사무소에서 '해외 페트코크(Pet-coke/석유정제 부산물) 발전 공동개발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사가 추진하는 페트코크 발전은 CFBC(순환유동층) 보일러라는 특수설비를 통해 페트코크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3사는 각 사의 장점을 융합해 해외 정유공장 인근에 CFBC 보일러를 건설하고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페트코크로 전력을 생산해 정유공장에 재판매할 계획이다. 5년간 20개 사업을 개발해 10조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박 경제운항시스템 개발

현대중공업이 최근 해상환경에 맞춰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고 선박 추진설비들의 가동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선박 경제운항 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원하는 도착 일시와 장소를 입력하면 최단 항로를 자동으로 산출해 전자해도(電子海圖)상에 표시해주는 것은 물론, 기상에 따라 최적의 운항속도와 변침점(變針點)/항해 중에 선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지점을 알려줘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스템은 항해사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항해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선박의 연료비용을 약 6% 절감할 수 있다.



엔진 라이선스 사업 진출

현대중공업은 7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 산업투자공사인 두수르(Dussur)와 함께 '선박 및 육상용 엔진사업 합작'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엔진 라이선스(License)사업에 처음 진출하기로 했다.
이번 MOU에 따라 3사가 설립하는 엔진 합작사는 2019년까지 총 4억불을 투자해 사우디 동부 라스 알헤어(Ras Al-Khair) 지역의 '킹 살만(King Salman) 조선산업단지'에 연산 200대 규모의 엔진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합작사를 통해 로열티, 기자재 판매, 기술 지원 등의 다양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형 화공설비 2기 제작

현대중공업이 최근 울산 에쓰오일(S-Oil)에 건설 중인 세계 최초 '고효율 중질유 고도화 시설(HS-FCC)'에 초대형 화공설비 2기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한 지름 17미터 규모의 반응기와 지름 22미터 규모의 촉매 재생기는 원유 정제 후 남은 기름 찌꺼기(잔사유)를 정제해, 하루 7만6천 배럴(bbl) 가량의 프로필렌 등 고부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이 설비를 수주해 지난해 6월 착공한 이래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제작을 완료했다.



美서 최대 규모 지게차 수주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미국 건설자재업체인 올드캐슬(Old Castle)사로부터 해외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인 지게차 285대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지게차는 2.5~5톤급 중소형 LPG지게차로,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기계는 딜러망 확충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 북미 지게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천730대를 수주했다. 또한 연간 판매 목표도 역대 가장 많은 3천300대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사업 추진

현대일렉트릭은 7월 13일 분당 본사에서 현대중공업, KEPCO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오는 10월까지 현대중공업에 산업용으로 세계 최대인 50MWh(메가와트시) 용량의 ESS를 설치한다.
ESS는 전력을 담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50MWh는 1만5천여명이 하루 동안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또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의 모든 에너지 사용을 통합적으로 통제, 관리,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7월 12일 분당 본사에서 공기업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발표회'를 열었다.
현대건설기계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맞춰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과 공급망관리시스템(SCM), 딜러지원시스템 등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하고, 이날 프로젝트 수행 전략과 향후 수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각 시스템의 목표 기능과 세부 개발 항목들을 정한 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스서 고객 초청 행사 개최

현대글로벌서비스가 7월 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객 초청 행사인 '글로벌서비스데이(Global Service Day)'(사진)를 열고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개 해운사 및 선급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친환경 선박 개조 △부품기술 융복합 서비스 △선박용 윤활유 공급서비스 △정보통신기술(CT) 기반 스마트십 서비스 등 다양한 선박 엔지니어링 서비스 모델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선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LNG버커링선 설명회 개최

현대미포조선은 7월 5일 한우리회관 대강당에서 LNG 버커링선의 성공적인 건조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영석 사장을 비롯해 생산, 기획, 설계부문 임원 및 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선박의 개요와 특성, 선주사의 요구사항, 설계 및 건조 시 유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LNG버커링선은 독일 베르나드 슈테(Bernhard Schulte)로부터 수주한 7천 500입방미터급 선박으로, 오는 11월 강재절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게 된다.



고망간강 벌크선 건조 나서

현대미포조선은 7월 3일 3도크에서 세계 최초로 LNG연료탱크에 고망간강을 적용한 벌크선에 대한 용골거치식을 가졌다.

이 선박은 일산화운으로부터 수주한 5만톤급 선박으로 버커C유와 LNG를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과 고망간강을 적용한 LNG연료탱크를 탑재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개발한 신소재인 고망간강은 영하 162℃에 달하는 극저온의 LNG를 보관할 수 있으며, 기존 합금소재에 비해 강도와 인성이 월등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제5회 전사 치공구 전시회 개최

현대삼호중공업은 현장 작업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치공구의 사용과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제5회 전사 치공구 전시회'를 개최했다.

생산관 동편 야드에서 열린 이날 전시회에는 윤문균 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부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전시회에는 총 16개 부서에서 106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간단한 조작물에서 기계류까지 엄선된 40개 작품이 전시됐다.

윤문균 사장은 "우수한 치공구는 시대와 국적을 초월하는 만큼 우리도 좋은 치공구를 만들어 현장 작업여건을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CARDIFF사 감사장 수여

현대삼호중공업에 7만8천입방미터급 LPG선 4척을 발주한 그리스 CARDIFF사가 지난 6월 28일에 인도된 LPG선(S888)호선의 높은 품질과 납기 준수에 대해 감사장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6월 29일, 2안벽에서 수행된 감사장 수여식에서 CARDIFF사의 안토니오스 달라코스 사이트 매니저는 조민수 상무 등 회사 임직원 60여명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CARDIFF사는 선박이 성공적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헌신을 아끼지 않은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D 선박설계 운영시스템 개발 착수

현대미포조선은 7월 4일 남구 롯데시티호텔에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공정 고도화를 위한 의장품 어셈블리 운영시스템 개발 착수회'를 갖고, 3차원 정보기술(3D)을 활용한 선박설계 운영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2차원 설계도면을 3차원 입체도면으로 구현해 후행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도크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미포조선 사업기획부, 종합설계부, 정보기술부 관계자 10여명과 3D선박 설계 전문업체, 울산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추진 일정과 주요 과제 등을 점검했다.



임원부서장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현대미포조선이 7월 7일 저녁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임원부서장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울산 방어진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영석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부서장 5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 축구경기를 하며 체력을 키우는 한편, 불황 극복과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도 다졌다.

한영석 사장은 "물량 감소 등으로 올 한해도 어렵겠지만 모두가 협력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잘 극복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TEEKAY LNG선 본격 건조 착수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7월 7일, 가공공장에서 강재절단식을 열고 캐나다 TEEKAY사에서 수주한 17만4천입방미터급 LNG선(S856)의 건조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주인 캐나다 TEEKAY사의 사이트 매니저를 비롯해 DNV-GL선급,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건조를 기원했다.

이 선박은 2015년 6월 수주한 멤브레인형 LNG선 2척 중 첫 호선으로 길이 294미터, 폭 47.5미터, 깊이 26.4미터의 크기로 건조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하는 LNG선 중에서는 처음으로 MEG 엔진이 장착되며 내년 1월 진수를 거쳐 10월경에 인도될 예정이다.



15만8천톤급 유조선 건조백서 발표회 개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7월 12일, 경영지원관 1층 홍보관에서 15만8천톤급 원유운반선 터키 ACTIVE호사의(S899호선) 건조백서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건조 시에 발생했던 부서별, 공장별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후속선(S900) 건조 시에 반영해 야드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준비됐으며, 임원, 부서장, 담당 팀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유영호 전무는 총평을 통해 기초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마음과 철저한 준비로 최고의 선박 건조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선박은 지난해 6월 22일에 최종 인도됐다.

| 현대오일뱅크 |



한국서비스품질지수 3년 연속 1위

현대오일뱅크(사장: 문종박)가 7월 5일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2017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시상식'에서 3년 연속으로 주유소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평가모델(KS-SQI)에 따라 1년 이상의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품질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 업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에도 단독 1위를 차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 주유소의 제휴마케팅 등을 책임지는 MD조직(상품기획팀)을 운영하고, 온라인 서포터즈, 보너스카드 모니터링 회원 활동을 지원해 획기적인 고객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서울아산병원 |



국내 최초 인공망막 이식 성공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은 지난 7월 14일, 국내 최초로 망막 시세포의 기능을 잃어 실명한 환자(망막색소변성 환자)에게 '인공망막 이식수술'을 하는데 성공했다.

윤영희 서울아산병원 교수(안과)는 5월 26일 이 환자에게 인공망막의 내부기기를 이식한데 이어 6월 12일 외부기기와 내부기기의 전자신호를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한 결과, 환자가 한달 만에 시력표에서 가장 큰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망막은 환자가 외부기기를 착용하면 카메라에서 얻은 시각 정보를 특수 휴대용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이후 이식된 내부기기로 전송해 시각 중추에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사물을 인식한다.

| 울산대학교병원 |



심장질환 무료 진료 실시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기)이 7월 14일 본관 강당에서 '심장질환 무료 진료 및 건강강좌'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대병원이 한국심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 사망률 2위인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심장 전문의 5명이 지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검사, 심전도 검사 등 무료 진료에 나섰다.

또 정종필 교수(흉부외과)와 김신재 교수(심장내과)가 각각 '심근경색과 협심증', '심장병 수술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하며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심장질환 예방법과 치료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 국제교류원이 7월 4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 교육 행사인 '울산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2017'을 운영했다.

이 교육에는 울산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는 해외 대학교의 학생 38명이 참가했으며, △기초 한국어 △한국사회 개관 △한국 국제무역 △한국 기업문화 등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한국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 학생들은 웅기 만들기과 태권도 등 전통문화를 체험한데 이어,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경복궁, 통도사, 공동경비구역(USA) 등 국내 곳곳을 견학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 울산대학교 |



학생-산업기술자 멘토링 결연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이 7월 13일 서부캠퍼스 1공학관에서 울산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이하 NCN), 울산공업고등학교 동문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식나눔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날 산업체 공장장 출신인 NCN 전문위원 10명은 울산과학대학교, 울산공업고등학교의 환경화학공업과 학생 46명과 멘토링 결연을 맺고, 오랜 실무경험과 현장기술들을 전수하며 전문 기술인재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과학대는 지난 2009년부터 울산공고와 함께 특성화고(2년), 전문대학(2년)을 연계한 '환경화학공업과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NCN과 함께 학생들의 멘토링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울산과학대학교 |



첫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완공

현대힘스(사장 : 김재훈)는 6월 26일 충북 제천시에 첫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완공했다.

현대힘스는 지난 4월 에코스ENC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비축하는 1.1MW급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수주했으며, 기자재 제작부터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도급방식(Turnkey)에 따라 약 3개월 만에 완공했다.

현대힘스는 지난 2008년 조선 기자재와 건설장비 부품을 제조하고 구매하는 회사로 설립됐으며, 최근 태양광 인버터와 ESS 패키지 상품 개발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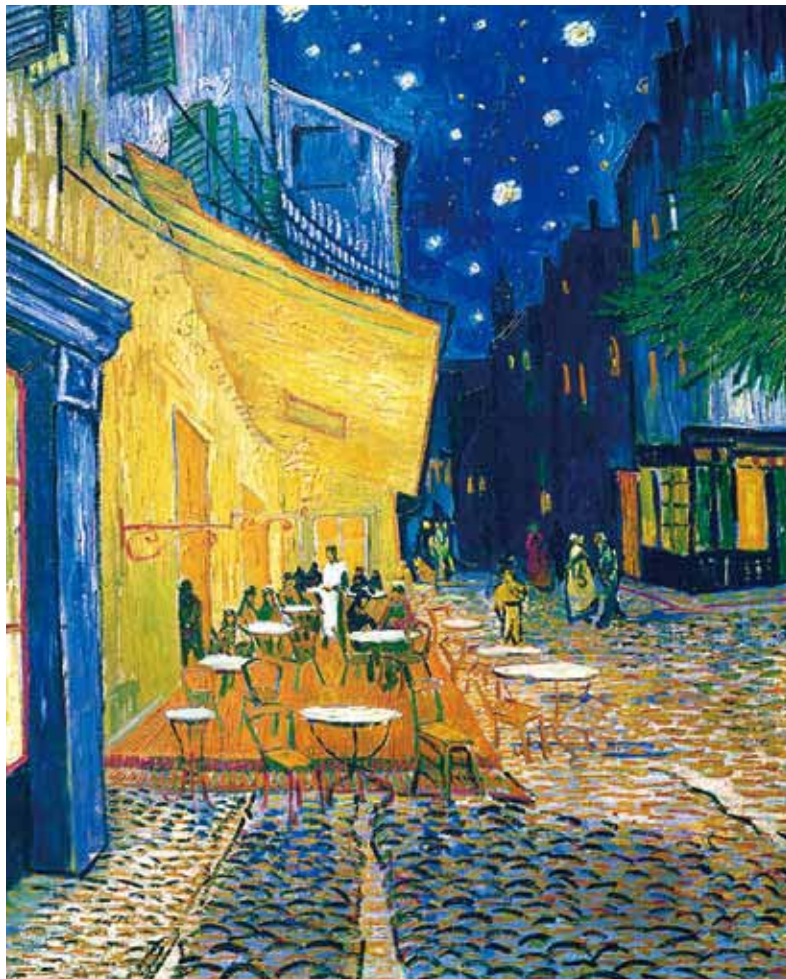
| 현대힘스 |



영화 감상부터 다채로운 체험까지!

선명한 색채와 격렬한 필치! 빈센트 반 고흐의 레플리카 체험전이 7월부터 약 3개월 간 현대예술관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흐의 대표작인 ‘해바라기(1888)’, ‘밤의 카페(1888)’, ‘별이 빛나는 밤(1889)’,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1889)’을 포함, 그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담긴 레플리카 작품 71점이 선을 보인다. 작품과 함께 고흐의 삶을 따라가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보자.

※ ‘레플리카’란 원작의 보존을 위해 전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고품질의 복제 작품으로, 색채와 질감 모두 정밀하게 재현해낸 작품을 말한다.



Profile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나는 나의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20세기 서양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지독한 가난과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며 늘 고독했던 고흐는 37세의 나이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술한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만의 굳은 신념으로 작업에 몰두해 10년이라는 짧은 화가 생활 동안 879점의 회화와 1천00여 점의 스케치를 남겼다.

Section 1

초기 네덜란드 농민화가 시절 (1881~1885)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 최하층민의 거친 생활을 정직하고 소박한 필치로 표현하였다.

Section 2

파리에서의 수련기간 (1885~1888)

폴루즈 로트렉, 에밀 베르나르 그리고 고갱 등 최고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가진다.

Section 3

남부 프랑스, 아를(Arles)에서 (1888)

고흐가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시기로, 남부 프랑스에서 스스로의 본질이라 생각한 ‘강렬한 색채’를 얻는다.

Section 4

삶 자체인 그림, 생 레미 요양병원에서 (1889)

고흐의 생애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로, 정신 질환으로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요양치료를 받게 된다.

Section 5

오베를 쉬르 우아즈에서 (1890)

생이 다하기까지 지낸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70여 일 동안 80여 점의 작품을 남긴다. 소용돌이 같이 굽이치는 붓 터치가 돋보인다.

| 관람 정보 |

일시 2017년 7월 8일(토) ~ 10월 8일(일)

오전 11시 ~ 저녁 7시 30분 (입장 마감
저녁 7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현대예술관 미술관 (☎052-209-7858)

가격 성인 8천원, 중고등학생 이하 7천원

시대를 초월한 명품 콘텐츠의 귀환

Synopsis

인간으로 태어나 늑대로 자란 소년
‘모글리’의 위대한 모험!

평화로운 정글, 늑대 부족 앞에 갑자기 인간 아이 모글리가 나타났다.

늑대 부족의 대장 아켈라는 모글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글리는 그의 보호 아래 행복하게 성장한다.

하지만 호랑이 시어칸이 모글리를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탓에 평화롭던 정글에 위기가 찾아온다.

정글 가족들은 시어칸의 위협으로부터 모글리를 지키기 위해 모글리를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려 하고,

모글리는 정글의 평화를 위해 시어칸을 이길 무기를 찾아 용감한 여행을 시작하는데...

| 관람 정보 |

일시 2017년 11월 2일(목) ~ 4일(토)

평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1522-3331)

가격 1층 3만5천원, 2층 2만원



2016년 서울 초연 당시 100회차를 무대에 올리며 6만5천명의 유료관객을 동원한 명품 ‘가족 뮤지컬 정글북’이 11월 2~4일에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가족 뮤지컬 정글북’은 1894년 출간된 J 라디어드 키플링의 소설 ‘정글북’을 원작으로 한다. 이 소설은 독창적인 상상력과 기발한 착상으로 190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명작이다.

이후 ‘정글북’은 1967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도서,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이름을 알리며 명실상부 최고의 흥행 콘텐츠로 떠올랐다.

특히 2년에 걸쳐 기획, 제작된 ‘가족 뮤지컬 정글북’은 매회 연속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번 공연에서도 탄탄한 스토리와 획기적인 무대연출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진짜 정글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선사할 예정이다.

실감나는 대형 코끼리와 12종이 넘는 동물들, 화려한 조명과 입체 영상은 지루할 틈 없이 모든 연령층의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오는 11월, 무대 위 80분간 펼쳐지는 정글의 세계에서 가족과 함께 위대한 모험을 떠나보자!



쓰라린 패배 딛고, 선두 도약 노린다!

응원 소리가 작았던 탓일까? 지난 7월 8일, 치열했던 전주성 전투의 끝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어린 처용전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경기 전까지 10경기에서 7승을 거두며 선두 도약을 노리던 울산은 '울산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전북에 0대4로 패배했다. 올 시즌 울산은 총 두 번의 4점차 이상 패배를 맛봤다.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력을 갖춘 울산이기에 이런 종류의 경기 결과는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쓰라린 패배의 상처는 울산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전남전 대패 이후 180도 달라진 경기력으로 리그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승점을 쓸어 담았고, 전북전 바로 다음 경기인 대구 원정경기에서는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 속에서도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3대1 승리를 거뒀다.

김도훈 감독은 “힘든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강해진다”며, “전북전 패배를 교훈 삼아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패배라는 '악'을 통해 더욱 강해진 울산이 치열한 리그 선두 다툼이 펼쳐질 8월을 기다리고 있다.

울산의 마지막 퍼즐 'No.9 & No.10'

울산이 기다려온 '그들이 왔다. 탄탄한 수비력에 비해 아쉬운 득점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게터 출신 김도훈 감독의 속제이기도 했다.

울산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양한 포지션 변화가 가능한 독일과 멀티 공격수 타쿠마 아베(30세)와 스위스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 타쿠마 아베



▼ 다니엘 수보티치



스트라이커 다니엘 수보티치(28세)를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빠른 순발력과 정교한 킥력을 고루 갖춘 타쿠마는 'No.10'의 역할인 공격형 미드필더와 웨도우 스트라이커 등 플레이메이커로서 활

약할 예정이다.

191cm의 큰 키에 단단한 피지컬 능력을 갖춘 수보티치는 김도훈 감독이 울산 부임 직후부터 희망하던 타겟형 스트라이커에 최적화된 선수다.

또, 현재 울산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오르샤와 동향(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출신인 점도 그의 빠른 적응과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찌는 듯한 울산의 여름, 이종훈-오르샤-타쿠마-수보티치로 이어지는 막강한 화력이 시원한 골 폭풍을 몰고 오기를 기대한다.

이탈의 선수 - GK 김용대

베테랑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K리그 통산 400경기 출장, 다수의 리그 및 컵 대회 우승, K리그 올스타, 국가대표, 많은 것을 이뤄낸 데뷔 17년 차의 리그 최고참이지만, 신인보다 뜨거운 열정이 가슴 속에 타오르기에 김용대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자신을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울산현대의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 김용대입니다.

최근 울산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진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비결은? 김도훈 감독님의 전술과 선수들의 호흡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의 위기가 오히려 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쉽게 지지 않는 게임이 이어지면서 수비 스타일도 약척같이 바뀌었고요, 수비진의 친구(新舊) 조화도 리그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세이브로 수 차례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았는데?

데뷔한 지 17년 차인데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참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부상 없이 몸 관리 잘해서 울산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선수들도 예민해지는 경기가 '동해안 대비'인데요. 지난 6월 포항과의 경기에서 제가 페널티킥을 막고, 후반 45분에 김승준 선수가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원정 응원을 해주신 울산 팬들의 함성이 엄청났습니다.

조수혁 골키퍼가 존경하는 선수로 김용대 선수를 꼽았다. 같은 포지션의 선배로서 조수혁 선수를 말한다면?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전에 다른 팀에서 한술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늘 한결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수죠. 주전 경쟁을 하고 있지만, 가장 믿고 의지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울산현대가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합 중에는, 특히 경기 중후반을 넘어가서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역전승이 많은 울산이지만, 그만큼 역전패도 많죠. 수비는 수비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강팀들의 공통점은 '방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올 시즌 본인의 목표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당장의 목표는 1점대 방어율로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되다 보니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팬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응원에 감사 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험한 각오를 전하는 김용대 선수의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낭만 가득~ 폴피리 불던 추억 떠올라!



춤춤하게 짜인 일상에 휴식을 불어넣는 '힐링의 소리, 하모니카' 강좌가 한마음회관에 열렸다. 하모니카는 악기로 보급 된지 약 150년이 되었는데, 2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구입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악기다.

하모니카에 '추억의 소리', '힐링의 소리'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작은 악기에서 나는 3옥타브의 소리가 한적한 시골 마을,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불던 폴피리 소리와 닮았기 때문이다. 하모니카가 선사하는 소소하고 따뜻한 추억들로 강의실엔 낭만이 물들고 어느새 마음도 정화된다.

하모니카 강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백순태(52세) 씨는 "하모니카는 한마디로 환상적인 산물로 영혼을 불어넣는 악기"라며 "중년에 접어들어 하모니카를 연주하다 보니 젊었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한 여유를 알게 됐다"고 말한다.

한마음회관에 하모니카 강좌가 개설 된지는 1년 남짓. 그 동안 수강생들은 남목노인요양원에서 공연 봉사를 하고 현대예술관 로비 음악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성 담은 하모니카 연주에 어르신들이 보내주셨던 큰 호응과 박수소리는 아직도 수강생들의 귓가에 울려 퍼진다고 한다. 수강생들의 연주를 흐뭇하게 듣고 있던 신부자 강사(42세)는 "수강생들끼리 서로 단합을 잘 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한다.

"하모니카 소리가 예뻐서", "음악에 대해 너무 몰라서 배우러 왔다"는 신입회원들의 말처럼 올 여름 하모니카의 영롱한 소리에 빠져 보람과 추억을 쌓아보길 바란다.

최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한마음회관 '힐링의 소리, 하모니카'
시간 화요일 저녁 7시 ~ 8시
장소 한마음회관 3층 제2 미술실
수강료 9만원/3개월 (개인악기 자참)



2016년 화제를 모은 걸그룹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101명의 소녀들이 연습생에서 벗어나 데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 청춘들이 처한 현실의 축소판과 같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나를 선택해달라'는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산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선택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고단한 세대다.

'픽미(pick-me)세대'는 대한민국의 1997년생부터 1985년생까지, 20대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 초반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유년기부터 모바일을 통해 세상에 로그인한 픽미세대는 아날로그인 기성세대와 확연한 차별성을 갖는다.

모바일, 인터넷을 경험한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친구를 사귀고 대화하고 TV를 보고 게임을 하며 관심 있는 상품을 찾고 물건을 구매한다.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온라인의 비중이 더 높은 경향도 있다.

또한 이들은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저성장기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한국이 저성장 기조를 보이기 시작한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다. 이들이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불황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셈이다.

픽미세대는 고도 성장기의 희망이 사라진 빈자리를 자조와 체념 또는 현실에 대한 빠른 직시로 채우며 불만스럽지만 세상 사는 이

치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다. 알 수 없는 미래라는 불안 앞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현실의 소소함에서 즐거움을 찾고, 적자생존과 각자도생이라는 어려운 시대의 가치관을 조롱하면서도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부족한 주머니 사정을 보완하기 위해 아끼고 빌리거나 때로는 가상으로 실속 소비를 하고, 오늘 하루만이 라도 즐겁게 보내자는 현실지향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명품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적고 소득이 낮아도 실질적인 소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커, 가격세일 행사를 자주하는 소셜커머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게다가 아껴 쓰는 것으로 충족이 안되면 빌려 쓴다는 이들에게 공유서비스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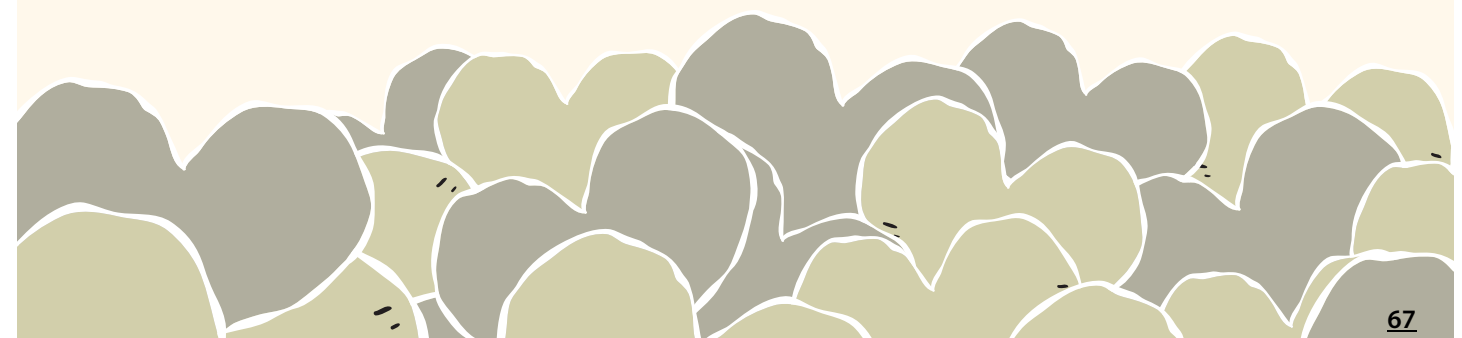
더불어 이들은 '오늘이라도 재미있게 사는 게 남는 것'이라는 사고로 무장하고 보험이나 저축보다 오늘에 투자한다. 논리보다 감성, 텍스트보다는 사진, 진지함보다 가벼운 유머에 열광하는 것은 모두 현재를 충분히 즐기겠다는 심리가 바탕에 있다.

한편, 호황기의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적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픽미세대는 변화와 개혁, 모험보다는 안정 지향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동시에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열린 태도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사회가 정해놓은 시스템을 벗어나 인간적인 삶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픽미세대는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역인 동시에 사회 변화의 중심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트렌드 코리아 2017, 김난도 외

선택받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청춘'



아래는 울산대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환학생들이 7월 5일(수) 현대중공업을 견학한 소감을 번역한 글입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한 놀라운 회사”



짐 트루옹
(Jim Truong / 미국)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라고 불리는 울산. 그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현대’라는 브랜드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느끼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미국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 기술자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놀라움 그 자체였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고 있는 대형 선박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거대했고, 보이진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특히 거대한 크레인이나 수 백 톤 무게의 블록을 옮기고, 거대한 블록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놀라운 산업을 일으킨 사람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교환학생으로 오기 전 인터넷으로 잠깐 알아본 정주영 창업자는 내게 그냥 현명한 기업가 정도였다. 하지만 견학을 마친 뒤, 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쌀가게 점원에서 시작해 명망 높은 대기업에 이뤄내는 등 큰 성공을 이뤘음에도 정주영 창업자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그는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진정한 부자였던 것이다.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한국 특히 현대중공업이 위대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현재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이렇게 거대한 산업을 세웠다는 것은 다른 기업의 성공 신화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는 것을 느꼈다.

견학을 마치며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은 자본, 기술 같은 것이 아니라 빛나는 아이디어와 그것을 가능케 하

는 열정과 부단한 노력이라는 것이다. 정주영 창업자는 진정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기업가인 것 같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나는 그가 설립한 대학교에 온 한 명의 외국인 교환학생이지만 이번 현대중공업 견학은 학문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가게 된 정말 좋은 기회였다.



“세계 최대 조선소에서 잊지 못할 투어”

현대중공업 견학은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다. 투어를 진행한 현대중공업 직원이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응? 배?”라고 의문을 가졌다. 미국에서는 현대라는 이름을 듣게 된다면 오직 한국 자동차 회사만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견학을 통해 그게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

현대중공업 투어 중 몇 명의 학생들은 놀라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회사는 시장을 이끌고 있어. 이 분야에서 미국회사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미국에서 온 우리 대부분은 현대중공업이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했고, 1972년 정주영 창업자의 독창적인 시각이 세계적인 조선소를 탄생시켰음을 알게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40년 전에는 현재의 모습이 꿈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빈

백사장이 세계 최대 조선소로 변화했고, 꿈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주영 창업자의 예지력과 추진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정신’이라 불리는 창조적 예지, 적극의지, 강인한 추진력은 현대중공업의 경영철학에도 녹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번 견학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웠다. 현대중공업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업이 현대중공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 그야말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나의 시각이 넓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한국 방문객들에게 현대중공업을 꼭 방문해서 야드 투어를 해볼 것을 권유할 것이다. 나처럼 그들에게도 현대중공업 방문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리드완 이브라힘
(Ridwan Ibrahim / 미국)



“중국 장가계 가자!”

김정규 기원 |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나이 들면 다리에 힘이 없다. 여행도 젊었을 때 가지 않으니 힘들어서 가지도 못한다’고 했던가? 작년 여름부터 나는 아는 지인들과 의기투합해 주위에서 손꼽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 중국 장가계로 부부동반 여행을 준비했다.

“그래, 더 나이 들기 전에 가보자! 그 좋았던 장가계”

지인 중 한 명이 올 초부터 여행사를 방문해 꼼꼼하게 일정을 체크한 덕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장가계에 가게 됐다. 하지만 돌연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우리의 중국 방문은 좌절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준비한 것이 아까웠고 우리가 굳이 여행을 접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사실, 우리는 중국 사람들의 위협보다는 혹여 비가 많이 와서 관광을 망칠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었다. 드디어 여행 당일, 우리는 김해공항에서 오후 2시 15분에 출발해 저녁 7시에 순조롭게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장가계 공항에 첫발을 내디뎠다.

크게 덥지도 않고 따뜻한 봄 날씨의 중국은 평화롭게 느껴졌다. 미리 마중 나와있는 가이드와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준비된 리무진 버스에 탑승해 호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5일 동안 머물 숙소로 이동했다.

다음날 호텔 조식을 여유롭게 먹은 후, 흙, 나무, 돌을 이용하여 장가계의 비경을 그린 군성사석화를 관람했다. 완성된 그림 하나 하나가 어찌나 생생한지 정말 깜짝 놀랐다.

군성사석화는 작품 하나당 완성까지 평균 2~3년이 걸리는데 만약 작업 중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예술작품이란 오랜 시간과 정성이 있어야 비로소 빛을 내는가 보다.

우리는 사석화를 뒤로 하고 장가계의 혼 ‘천문산’으로 향했다. 천문산은 며칠 전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내일부터 케이블카를 보수한다고 했다. 혹여 하루라도 늦었으면, 케이블카 탑승을 못할 뻔 했다.

행운이 따라 탑승하게 된 케이블카에서 새삼스레 중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느꼈다. 이젠 단순한 케이블카가 아니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 황홀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협곡에 케이블카를 설치했는지, 정말 “와~”라는 감탄사 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늘 끝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구름 위의 대협곡을 걷는듯 해 마치 천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것 뿐이던가? 12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하산하는데, 그것 또한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선사했다. 마치 깊은 땅속을 한없이 내려가서 지구 반대편으로 통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웅장한 자태의 천문산의 천문동은 마치 세상의 블랙홀을

보는 듯 신비로웠다.

둘째 날은 보봉호 유람을 시작으로 흙이 없는 돌봉우리 위에 푸른 소나무가 자라서 마치 붓을 거꾸로 꽂아놓은 듯한 어필봉, 산봉우리에 어렴풋이 아름다운 미녀의 모습이 그려지는 선녀현화, 300미터의 커다란 두 개의 바위를 이어놓은 천연석교 천하제일교, 천태만상의 봉우리의 절경에 혼을 빼앗길 수 있다는 미혼대를 방문했다. 보봉호수에서는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토가족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나도 유람호에서 답가를 해 추억을 남기기도 하였다.

마지막 날은 황금빛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황룡동굴을 방문했다. 입구는 좁지만 수직 160미터의 동굴이 펼쳐져 차원의 문을 넘은듯한 느낌을 주었다. 석회암 용암 동굴인 이곳은 중국의 10대 용암동굴 중의 하나인데 우리는 동굴 내부에서 보트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했다.

오후에는 모 케이블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유리다리를 관람했다. 여기에서는 다리의 크기에 놀라고 다리 위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한번 놀랐다. 이 유리다리는 한때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 폐쇄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정 인원의 다리관람이 끝나야만 매표소에서 표를 판다고 했다.

저녁에는 천문산을 배경으로 한 ‘여우와 나무꾼의 사랑’을 그린 공연을 관람했다. 조금 진부한 내용이지만, 출연 배우만 500명이며 무대가 천문산 자연 그대로라 그런지 잠시 다른 세계를 다녀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올해로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도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떠날 때 예전 같으면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말하던 가이드가 생각났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안내하고는 다음 스케줄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현지 가이드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주도에 전년 대비 중국



여행객이 61% 감소했을 만큼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들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중국도 한국과의 이런 관계가 마냥 좋지는 않을 것이다. 조속히 문제들이 해결되어 예전같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인더스트리 4.0’을 읽고

마민영 대리 | 현대중공업 특수선수중합의장설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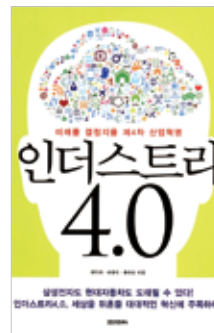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주변 및 미디어 상에서 자주 듣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1차(증기기관의 발명), 2차(전기 생산 및 제품 대량 생산), 3차(인터넷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사회) 산업혁명을 거쳐 IT기술과 제조공장을 결합한 스마트 공장 및 디지털 공장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정부 및 여러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판단하건데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판도 위에서 한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품질을 가진 상품을 시장에 공급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또, 독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명칭만 다



를 뿐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이 인터넷과 결합되어 스마트 공장을 탄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및 A/S 전 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원가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 공정상의 오작동을 낮춰 제품 생산을 효율적으로

해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회사와도 인더스트리 4.0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될 때면 항상 뒤따르는 수식어인 3D 프린팅 기술, 빅데이터 활용, CPS(가상현실시스템), AI(인공지능), IOT(사물 인터넷)와 같은 용어들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찬찬히 읽다 보면, 향후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융합되고 복합되어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4개 국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가는 요즘, 변화를 감지하고 그 속도에 맞춰 가는 것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우들도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예측하며 변화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사람 그리고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고,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색 데이트 장소



현대중공업 기장설계부 | 박찬세 대리

무더위와 함께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밤-영화-카페의 지루한 데이트 코스에 지친 커플들에게 이색 데이트 장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최근 울산 삼산에 새로 생긴 VR Focus에 다녀왔다. 이 곳은 VR을 이용하여 각종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곳인데, 닌텐도 Wii나 Play station을 통해 증강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울산 달동에도 이와 비슷한 VR Plus라는 곳이 새로 오픈하여 젊은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VR Focus에서는 1시간 동안 1만2천원의 요금을 내면 레이싱 게임, 롤러코스터 타기, 바이킹 타기, 사격, 로봇과 싸움하기, 소닉, 방 탈출하기, 지하철에서 살아남기, 우주선 타기 등의 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각 기계마다 안내원들이 있어, 처음 사용해 보는 사람에게 사용법을 알려주고, 셋팅도 해준다.

나는 처음에 가지마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짜릿함과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다음에는 지하철에서 총을 얻어 괴한들과 총싸움을 하는 게임을 했는데, 마치 방 탈출게임을 하는 것처럼 머리를 싸야 했다. 게임이었지만 몰입감이 뛰어나 매우 재미있었다.

가장 재미있던 것은 내가 로봇 안에 들어가 사방에서 몰려드는 로봇들을 처치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게임이었다. 처음에는 VR을 이용한 기계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고생하였지만, 점차 게임기 조작이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2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카를 타고 레이싱을 하는 게임, 전투기에 타서 몰려드는 적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게임 등이 있었다.

전투기 게임은 2명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리드하

여 전투기를 운전하고 적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요즘 증강현실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으며, 안전 점검 등에 활용되는 등 우리 사업장과도 많이 관련이 있다.

새로운 트렌드로 생겨나고 있는 VR 체험장은 주말에 색다른 데이트 장소를 찾는 연인들이 찾아볼 만하다.

쿠팡, 위메프와 같은 어플에서 저렴한 가격에 쿠폰을 구매 할 수 있으므로, 연인, 친구, 가족 단위로 게임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일 것이다.

또한, 게임 몇 개만 체험해보고 싶을 땐 3천원만 내면 게임을 해 볼 수 있다고 하니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하다.

무더위에 지쳤다면, 에어컨이 뽕뽕 터지는 실내 게임장에서 생생한 VR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길 바란다.





도전하는 이는 아름답다

유영찬 회장 | 현대중공업그룹 공무부

2009년 처음으로 용접기능장을 취득한 그 날의 짜릿함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선명하다. 그 이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관 기능장'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시험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변의 강한 권유로, 나는 그 동안 미뤄왔던 2, 3번째 기능장 취득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모든 게 뜻대로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펜을 놓은 지 오래된 상태에서 나에게 공부는 쉽지 않은 도전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시작은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단련시켰다.

열심히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였던 나는 답을 가리고 문제를 알아맞히는 방식으로 하루에 3번 정도, 더 부족하다 싶으면 10번 정도 반복 학습을 시작했다.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퇴근 후 1~3시간씩 약 한 달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필기 합격의 단 번에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필기 합격이라는 기쁜 날에도 나는 환호성을 지를 수 없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거대한 산, 주관식 필답형과 용접을 포함한 실기작품 조립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기를 위해 회사에 마련돼 있는 기술교육원 실습장에서 연습을 부단히 했다. 저녁식사를 거르기도 몇 번, 오직 실기 합격을 위해 달려 나갔다. 오지 않을 것 같던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나섰다. 모든 게 완벽했다. 연습도 충분히 하고 자신감도 있었다. 그러나 용접 작업

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댑터(Adaptor)와 엘보(Elbow)가 바뀌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속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실기 시험에 용기를 냈다.

회사에서는 기술교육원에서, 퇴근 후에는 집에서 연습을 반복했다. 그리고 여유도 있었다. 한 번 공부한 내용인지라 전보다는 수월함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자만하지 않고, 100% 완벽을 기하며 고쳐야 할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실기 시험을 치러 갔다.

처음과는 달리, 익숙한 시험장.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하며 집중했다. 그 결과 최종 합격을 이룰 수 있었다.

'합격'의 단맛을 봐버린 나는 최근 어렵다던 에너지 관리 기능장까지 취득하며 처음 목표했던 3관왕을 달성할 수 있었다.

현재,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은 기능사 6개, 산업기사 2개, 기능장 3개로 총 11개로 늘어났다.

지금의 나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새로운 목표가 정해진다면 나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또 다시 열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갈 것이다.

나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열정만 있으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들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삶은 언제나 당당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유영찬 회장이 전하는 배관 기능장 실기 합격 TIP

- ① 실기 시험 접수는 최대한 뒤로 잡아라.
- ② 지그를 이용하라.
- ③ 시간을 잘 조절하라.



뜨거웠던, 영화 '옥자'의 개봉 현장을 다녀와서

현대중공업 조선인재운영부 | 주영희 사우



지난 7월 1일 저녁, 현대예술관 소공연장에서 영화 '옥자'의 무대인사가 있었습니다.

영화 옥자는 6월 29일 넷플릭스(Netflix/온라인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와 극장의 동시 개봉을 실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대부분의 영화는 극장 상영이 끝난 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옥자는 독특하게 넷플릭스 위주의 개봉을 해 상영관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예술관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또, 무대인사도 마련했다는 소식에 저는 서둘러 영화 예매를 하고 현대예술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국열차 이후 4년 만에 개봉하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라 정말 기대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상영관에 입장하니 이미 전석 매진! '옥자'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영화 옥자는 강원도 산골소녀 미자의 둘도 없는 친구 돼지(옥자)가 미국 미란도 그룹의 슈퍼돼지 프로젝트를 위해 뉴욕으로 끌려가는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회사와 개인, 동물보호단체까지 각자 이권을 둘러싸고 옥자를 차지하려는 세상에서 미자는 옥자를 구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자리에 앉아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데 무대인사가 준비돼 있어서인지 기념품을 나눠주었습니다. 돼지와 하마가 섞인 듯한 옥자 포스트잇과 부채까지, 예상 밖의 선물을 받아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이윽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과 지루함 없이 흘러가는 이야기에 한껏 몰입했더니 2시간의 러닝타임도 금세 끝이 났습니다.

이후 기다리던 무대인사가 시작되었고, 이 날 현대예술관에는 제작사 측 담당자와 감독 봉준호, 배우

변희봉 씨가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눈 앞에서 유명 감독과 배우를 보니 신기한 마음에 저절로 사진을 찍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변희봉 씨는 '폴란드의 개', '살인의 추억', '괴물' 그리고 '옥자'까지 4번이나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배우 변희봉 이야말로 봉 감독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가 아닐까 하는 재미난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봉준호 감독의 인사말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여운이 그만큼 컸다는 거겠지요?

현실과 판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한 편의 동화 같은 영화 '옥자'! 사우 여러분들도 한 번쯤 감상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박미라 | 현대중공업 특수선생선부 서종홍 사우 부인

홍목련

목련 속 가까이
톡톡 부끄러운 속을 내 보이며
봄이 저만치서 웃으며 걸어온다

붉은 차마 저고리
한올 한올 벗어 던지고
감추었던 노오란 속내를 보인다

알듯 말듯한 미소 속에
못 본 체 할 수 없어
나의 정신을 흔들어
보듬고 있으니

슬프도록 곱고 단아하다
속살이 비치는 붉은 저고리
마중 나간 붉은 정원
유혹의 텃에 걸렸네

신비로운 사람



현대심호중공업 총무부 | 김은지 사우

눈부시게 찬란한 하늘
그 아래,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넌 떠올린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꿈속 이곳저곳을 누비며
먼 길, 널 찾아 꽃길을 걷는 상상을 한다

너는
한줄기 햇살같이
새까만 밤하늘 시린 달빛같이
따뜻하고 서늘한 빛 같다

너의 손끝과 입김은
오염되고 변색돼버린 내 마음을 부스고

네 한 줌 빛깔과 반짝이는 눈짓은
슬픔에 잠긴 나를 달래고

내 영혼에 맞닿은 너의 입술은
망가진 내게 숨을 불어 넣는다

넌 내게 그렇다

너의 행동과 말 하나로
죽은 나를 살려내고
살아있는 나를 좌절시킬 수 있는

신비롭고도 이상한 사람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wlgusdl10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1



해양사업, 꿈과 도전의 역사 (김종도)

이 책은 2012년부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문 사업대표를 역임하신 김종도 전 대표께서 펴낸 책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는 수주 절벽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이 도약하고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 책은 약 30년간 해양 사업에 종사한 '해양인'이 전세계를 돌며, 석유 및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해양사업 분야에 참여했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낸 이야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해양인으로서의 꿈과 도전 정신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로 의기소침해졌을 많은 사우들에게 이 어려움도 곧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공유하고자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민철 과장
현대중공업 해양전계장설계부

2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정재승 著)

한국 과학책 가운데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최근 출간 10주년을 맞아 증보판으로 다시 출간됐습니다. 출간 이후 교과서에 수록되고 각종 매체에 인용되며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은 과학은 따분하고 어렵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기며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일상과 전문 지식, 과학과 여타 학문들을 넘나드는 저자의 글쓰기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저자는 과학이나 수학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우들과 자녀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작정 딱딱한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과학을 통해 쉽게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임채봉 사우
현대미포조선 자재지원부

3



명견만리 (KBS 명견만리 제작팀)

명견만리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의 일을 환하게 살펴서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책에서는 은퇴 폭탄, 일자리 실종과 같은 일상의 문제부터 북한의 장마당, 치매 쓰나미 등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슈들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트렌드와 사례,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기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시대에서 발생하는 절박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대처할 것인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미래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김재민 반장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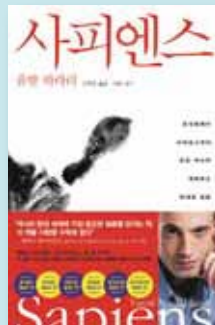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는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지표로 삼아 여행을 떠납니다. 숱한 시련을 겪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은 산티아고는 마침내 피라미드를 찾아냅니다.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모두들 꿈을 좇아 살아가지만 인생은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티아고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꿈을 향해 달려가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김효진 사우
현대중공업 조선의장생산지원부

5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이 책은 지난해 전 세계 출판계와 언론을 들썩이게 한 문제작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북클럽에서 함께 읽고 싶으며 이 책을 추천했고, 제러드 다이아몬드, 데미안 허스트, 헨닝 망켈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명사들도 주저 없이 읽기를 권한 책입니다. 저자는 책의 두께에 한 번 놀라고, 인류의 기원과 연혁을 다룬 방대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자는 멀고 먼 인류의 기원부터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 끊임없이 진화해온 인간의 역사를 생물학, 경제학, 종교학, 심리학, 철학 등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고 생생하게 조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역사학자로 일컬어지는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의 정수라 할만 합니다.

김종태 과장
현대미포조선 자재지원부

6



인생수업 (변윤스님)

'잘 묻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이 책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법륜 스님의 혜안이 담긴 인생 지침서입니다. 특히 즉문즉설로 법륜 스님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충들을 상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끄니다. 책에서는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늙으면 늙는 대로, 주름살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담담히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첫 걸음인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러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인생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책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고화영 과장
현대삼호중공업 판별조립부

7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감범준)

그 동안 우리들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잊고 있었던 '말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평소 우리는 남들과 대화할 때 말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말투가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말합니다. 공격적인 말투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거나 소극적인 말투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오해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저자는 문제가 있었던 말투를 찾아내 하나씩 고쳐보면, 누구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말투 하나만 달라져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대화의 중요성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대화를 지배하는 건 곧 말투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임입니다.

김효일 사원
현대중공업 총무부

8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의 대가인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가 몇 년간에 걸쳐 대화를 나눈 후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청년의 질문과 그에 대한 철학자의 답변을 따라가다 보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들은 인간은 변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유로워질 용기, 평범해질 용기, 행복해질 용기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사우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았으면 합니다.

황남환 사우
현대미포조선 건조부



임대차보증금으로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요?

Q. 일산지 주변의 건물 소유주인 김부장은 건물 내 점포 하나를 박과장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임대 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였으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런데 박과장은 지역 경기가 어려워진 후부터 장사가 안돼 월세를 못 내고 겨우 점포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부장은 박과장의 처지가 딱해 밀린 월세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별도로 월세를 독촉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알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박과장은 2017년 7월 1일 김부장에게 2017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가게를 빼겠다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김부장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밀린 월세 1천290만원을 보증금 5천만원에서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과장은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월세 소멸시효는 3년이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과장의 주장대로 김부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지 말고 돌려줘야 할까요?

A. 월세 채권 즉 차임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210만 원의 월세는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박과장의 주장처럼 일부 월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차임채권의 보증금 공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 차임이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김부장은 박과장에게 별도로 차임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차임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인 경우가 많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춰 보면,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소멸시효와 상관 없이 차임채권이 장차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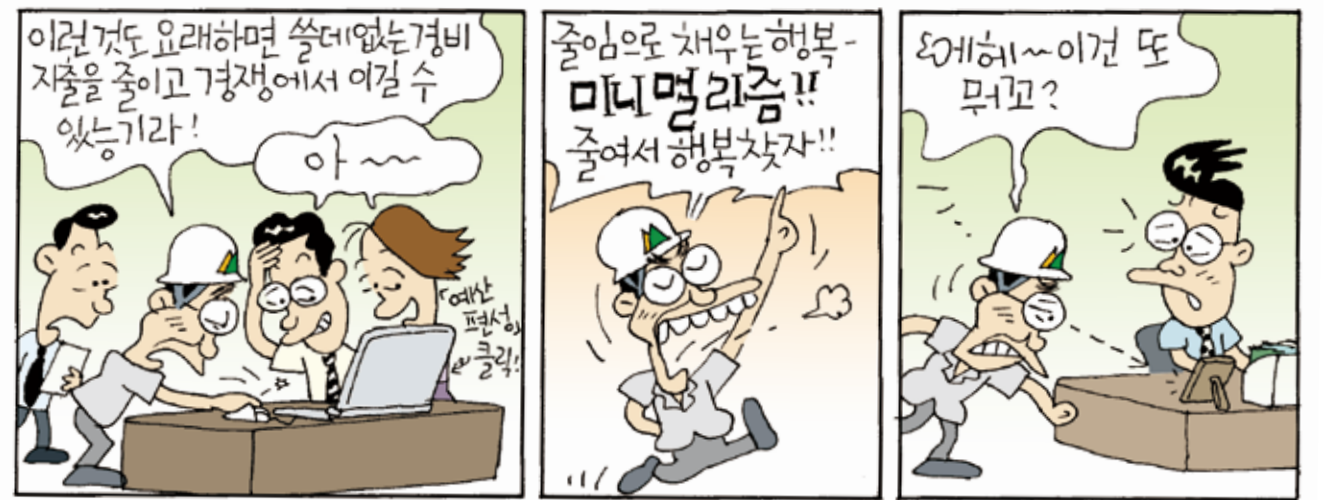
따라서 차임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결국 김부장은 박과장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에서 연체된 1천29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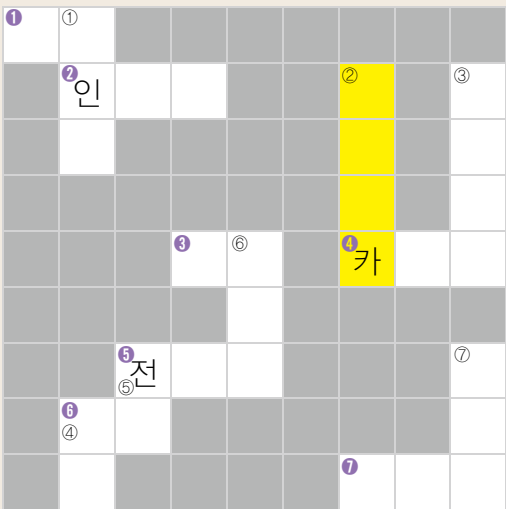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02-746-4667



 십자말 풀이



가로 열쇠

- 1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사람들로, 사회에서 선택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OO 세대라고 부른다. (p.67 참고)
- 2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재개발원에서는 쉽고 재미있는 000 특강을 실시했다. (p.40 참고)
- 3 현대삼호중공업은 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00 대회를 실시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 (p.20 참고)
- 4 쓴맛이 있는 무색의 고체로 카페의 열매나 잎, 카카오와 차 따위의 잎에 들어있으며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
- 5 형제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한 시기를 이르는 말.
- 6 기구나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기능상의 장애.
- 7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세계 3위 수준의 해운업을 자랑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이 나라 선주사로부터 총 75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p.32 참고)

세로 열쇠

- 1 삼십육계중 제37계에 나오는 책략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용해 상대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계략을 말한다. 춘추전국시대 '월나라 서시'가 이 책략의 대명사로 불린다.
- 2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좋은 관악기로, 입술과 혀를 이용하여 들숨과 날숨으로 연주한다. (p.66 참고)
- 3 '논어'에 나오는 말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을 뜻하는 사자성어.
- 4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지독한 가난과 정신 질환에 시달리며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등의 작품을 남긴 이 화가의 이름, 빈센트 반 OO. (p.62 참고)
- 5 선박의 각종 전선 및 전력기기 등을 설치하고, 선내 곳곳으로 전력망을 연결하는 업무를 이르는 말. (p.16 참고)
- 6 대개 70만 년에서 1만 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인류는 뎡석기, 주먹 도끼 등의 석기 도구를 사용했다.
- 7 주로 피서나 휴양을 위한 휴가를 의미하는 말.

 퀴즈 당첨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함종구 현대미포조선 도장2부

Hotel Hyundai 울산 뷔페권(2인)

김창식 현대건설기계 설계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이지현 현대중공업 (주)중원산업

이선화 한솔선박

후생시설 이용권(1만원)

구민철 현대중공업 해양전계장설계부

김효진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김효일 현대중공업 총무부

권기현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생산부

김상춘 현대건설기계 가공부

남 철 현대중공업 기술관리부

성경훈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조진화 현대미포조선 선설설계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이종운 현대중공업 플랜트인재운영부

홍성현 현대중공업MOS 보전부

울산현대축구단 사인볼(1개)

이운태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1부

김동희 현대중공업 시운전부

이명렬 현대중공업 대조립5부

호랑이축구단 상품권(1만원)

이경민 현대미포조선 안전보건부

강재우 현대미포조선 자재지원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박수진 현대중공업 플랜트발전공사지원부

정동주 현대중공업 특수선선체설계부

김윤재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mybank 식사권(5만원)

이지인 현대중공업 보상운영부

권혁진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3부

이정의 현대미포조선 선설생산부

세로 2번의 정답을 8월 23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Hotel Hyundai 목포 뷔페권(2인)

강태욱 현대삼호중공업 자재지원부

사내매점 간식교환권(1만원)

차철영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정관식 현대삼호중공업 판넬조립부

박기진 현대삼호중공업 의장1부

김상률 현대삼호중공업 도장1부

박종혁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설계부

호텔현대목포 케이크 교환권(1매)

전태용 현대삼호중공업 기계 시운전부

허 진 대신엔지니어링

신안천일염

채일성 현대삼호중공업 HS-POPS팀

김창민 현대삼호중공업 선각기술부

유민오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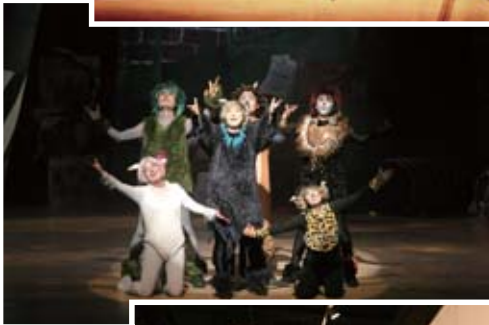
 지난호 정답

로	보	텍	스				탱	커
			마				고	
다	이	어	트					
					노	르	시	핑
					마			
	리				지			
즉	시	포	상		지	그	채	그
	아		담					리
								팅



강릉 씨마크 페스티벌 2017
2017. 7. 29 ~ 8. 5. 20:00~
씨마크 호텔, 아레나(야외공연장)

여유와 실속, 즐거움이 있는 여름휴가, 현대예술관 에서 즐기세요!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시네마관 | 미술관 | 스포츠 시설

정통 클래식, 라이브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등 수준급 공연
무대 위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는 연극

매일 상영되는 최신 영화

아름다운 사진전, 귀중한 소장품이 전시되는 특별전
볼링, 스쿼시 등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실내 스포츠

올 8월에도 공연, 전시, 스포츠가 한데 어우러진
현대예술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